

어머!  
2  
이제 TV와 인터넷으로  
공부하세요~!

#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

2009. 11. 2 (월) 10:00~12:30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

## 식 순

### 1부 || 개회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축 사
- 개 회 사 및 기조연설
  - 진 수 희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의원)
  - 곽 덕 훈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 2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 회
  - 임 해 규 (국회의원)
- 발 제
  - [발제1] 안 선 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 [발제2] 함 정 현 (한서대학교 교수)
- 토 론
  - 진 경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이 명 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서 대 식 (면온초등학교 교장)
  -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 박 치 형 (EBS 영어교육채널 팀장)
  - 정 일 용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 마무리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축 사



국 회 의 장  
김 형 오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주요현안에 대한 전략과제와 대안을 제시해온 생생한 정책의 산실 (재)여의도 연구소와 EBS에서 주최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는 교육선진화와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모색해보는 값진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별한 정성으로 알찬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알찬 토론을 위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 라 할 정도로 교육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공교육 불신, ‘교육 엑소시즘’, 기러기 아빠의 양산은 우리 교육현실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긴 하지만 공교육 살리기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합니다.

특히, 영어교육은 사교육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조기교육이 성행하고 고액도 아끼지 않는 영어 사교육도 등장하는 등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사실상 공용화된 글로벌 시대에 영어구사 능력은 국제 경쟁력, 조기유학, 어학연수 등 영어에 대한 남다른 집착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어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모색해보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시부터 영어 공교육 강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영어교육 강화방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합니다. 면밀한 점검과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원동력이 높은 교육열이었듯 대한민국은 교육 없이 내일로 전진할 순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참석한 오늘 토론회가 사교육의 핵심인 영어교육의 정상화와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이 공교육 신뢰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국 회 의 장

김 형 오

# 축 사



한 나 라 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교육비 경감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 전합니다.

인재창출은 국가발전의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유례없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룩했던 것도 높은 교육열에 바탕 한 우수한 인적자원 덕분입니다. 이제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리더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의 교육은 어느 순간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학업성취가 아닌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전락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교육과 관련된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어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33%정도를 차지하면서 우리 가계 살림에 큰 주름살을 지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기회는 대중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의 열쇠인 영어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구하는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소중한 까닭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교육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공교육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함께 하신 각계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획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 몽 준

# 개 회 사



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진 수 희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진수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신 안선희 부소장님, 함정현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진경애 박사님, 이명균 실장님, 서대식 교장선생님, 강윤봉 대표님, 박치형 팀장님, 정일용 정책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EBS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국회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가을이 없다’ 는 말입니다.

9월부터 한해 나라살림을 총결산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서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심의하다보면 언제 가을이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쉴 틈없이 분주한 국회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본회의 장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그만큼 우리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관련 토론회와 연구들을 연속 기획시리즈 형태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교육 살리기와 같은 교육의 큰 방향에서부터 최근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를 풀기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한 조사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도 이와 같은 ‘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최근 저희 여의도연구소가 조사한 결과(10월 22일/ARS/전국 5490명 응답/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pm 1.28$ )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성인 중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이 74.7%였으며,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49만원 이하가 59.9%, 50~149만원이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교육 유형은 일반 보습학원이 57.6%, 개인교습이 23.2%,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매우 부담이 된다’ 는 응답이 52.6%, ‘조금 부담이 된다’ 가 39.4%로 이 둘을 합하면 무려 91.9%가 ‘사교육이 부담이 된다’ 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단번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제도로 착근시켜 가야 합니다. 예컨대, 외고가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 영어는 사교육 시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절반 정도가 영어교육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인 EBS가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시행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 는 경우가 75.1%로 매우 높았으며, △대입에서 외국어 시험을 제외하고 이를 국가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이 56.7%로 과반 이상이었고, 반대 ‘는 22.4%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오늘 토론회에서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공영방송 활용과 방과후 학교 강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대안들부터 대입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근본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살리기’ 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희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진 수 희

# 개 회 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 덕 훈

안녕하십니까?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곽덕훈입니다.

국가적 관심사항인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뜻 깊은 토론 자리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 사교육비 증가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의 시급성에 공감하시고 EBS와 공동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신 여의도연구소의 진수희 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국회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교육연구소 안선희 부소장님과 한서대학교 함정현 교양학부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임해규 의원님, 토론에 참석해주신 강운봉 대표님, 박치형 팀장님, 서대식 교장선생님, 이명균 실장님, 정일용 정책관님, 진경애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사교육비 경감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영어사교육비 약 7조, 소득에 따른 격차 심해

200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거의 21조원에 이르렀고 영어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1/3에 해당하는 7조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학습의 경우, 영어 사용 환경이 갖춰져야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언어 연수 등 고액의 사교육비가 들어갈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영어는 지역 및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영어학습의 지역격차, 소득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EBS는 2007년 EBS English채널을 개국하고 공교육 보완 영어 학습 프로그램, 영어사용 환경 조성 프로그램을 하루 20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EBS는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 학습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닝 콘텐츠 및 학습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TV를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키울 수 있도록 매체별 특화전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주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BS English 채널에 대한 지원 강화되어야**

EBS의 영어 콘텐츠를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학습 콘텐츠가 부족하고 영어 사용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BS English 채널이 2008년 아쉽게도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로부터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영어학습에 꼭 필요한 방송으로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방송, 특히 농산어촌 지역과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필요한 교육서비스로서 많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 영어교육격차(English Divide)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곽 덕 훈

#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

## 목 차

발 제	■ 영어무상공교육과 영어교육혁신을 통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대책 ..... 15 - 안 선 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상명대학교 겸임교수)
	■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서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과 인터넷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을 활용 ..... 51 - 함 정 현 (한서대 교양학부 교수)
토 론	■ 영어 공교육 내실화와 방송 사교육비 경감 ..... 79 - 진 경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토론 ..... 85 - 이 명 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교육공동체가 네트워킹 한 EBS 교육방송 활용 ..... 97 - 서 대 식 (면온초등학교 교장)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생각 ..... 103 -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 EBS English 클립(Clip)형 콘텐츠를 통한 공교육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 109 - 박 치 형 (EBS 영어교육채널 팀장)
	■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 ..... 119 - 정 일 용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영어무상공교육과 영어교육혁신을 통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대책



안 선 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 상명대학교 겸임교수)





# 영어무상공교육과 영어교육혁신을 통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대책

안 선 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상명대학교 겸임교수)

## I. 영어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배경

### 1. 영어사교육비 현황 : 통계청(2009)의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월 7.6만원)와 증가율(11.8%)

○ 영어 사교육비: 월 7.6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23.3만원)의 33%

- 영어사교육비가 중산층·서민의 가장 중요한 사교육비 부담 요인임

○ 영어 사교육비(2008): 초등학생 월8.0만원 / 중학생 월8.2만원 / 일반고 월7.7만원

\* 2007년 영어사교육비 : 초등학생 월6.9만원 / 중학생 월7.6만원 / 일반고 월7.1만원

- 영어는 중학교(8만2천원)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수학은 일반계 고등학교(9만1천원)가 가장 많이 지출. 초중학교는 영어, 고등학교는 수학 사교육비 많음

○ 영어사교육비 증가율 : 초등학생 15.9% / 중학생 7.9% / 일반고 8.5% 증가

-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취학 전 영어사교육비 증가율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11.8%이며, 전체사교육비 증가율 5.0%의 2.36배

- 다른 어떤 교과보다 영어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중요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임

\* 수학 사교육비 증가율: 8.8%, 전체사교육비 증가율 5.0%의 1.76배

○ 국내 영어사교육비 : 약 15조 추정(전호상·최호찬, 2006년)<sup>1)</sup>

\* 2008년 초중등 사교육비 20.9조의 33%인 약 7조가 영어 사교육비

〈표 1〉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b>사교육비</b>	22.2	23.3	24.2	24.1	20.6	24.9	6.9
- 일반교과	17.8	18.8	17.4	22.6	17.6	21.7	4.2
국 어	2.2	2.3	2.1	2.8	2.0	2.5	0.4
<b>영 어</b>	<b>6.8</b>	<b>7.6</b>	<b>8.0</b>	<b>8.2</b>	<b>6.2</b>	<b>7.7</b>	<b>1.6</b>
수 학	5.7	6.2	4.6	7.9	7.7	9.5	1.7
사회, 과학	1.6	1.5	1.1	2.8	1.0	1.2	0.1
-예체능, 취미	4.3	4.4	6.8	1.5	2.8	3.0	2.0
<b>참 여 율</b>	77.0	75.1	87.9	72.5	53.4	60.5	30.3
- 일반교과	68.4	66.4	76.2	68.8	45.3	54.1	16.6
국 어	39.3	36.1	44.9	40.1	15.1	18.5	4.3
<b>영 어</b>	<b>55.6</b>	<b>55.6</b>	<b>62.7</b>	<b>64.1</b>	<b>33.0</b>	<b>39.7</b>	<b>11.2</b>
수 학	58.6	56.5	62.6	64.2	36.6	44.4	11.2
사회, 과학	25.6	22.8	23.0	35.3	9.1	11.4	1.6
-예체능, 취미	37.0	35.3	60.4	13.5	10.6	10.2	11.8

\* 자료 :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표 2〉 일반교과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

(단위:만원,%)

구 분	2007	2008	증감률	2008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b>사교육비</b>	22.2	23.3	5.0	24.2	24.1	20.6	24.9	6.9
- 일반교과	17.8	18.8	5.6	17.4	22.6	17.6	21.7	4.2
국 어	2.2	2.3	4.5	2.1	2.8	2.0	2.5	0.4
<b>영 어</b>	<b>6.8</b>	<b>7.6</b>	<b>11.8</b>	<b>8.0</b>	<b>8.2</b>	<b>6.2</b>	<b>7.7</b>	<b>1.6</b>
수 학	5.7	6.2	<b>8.8</b>	4.6	7.9	7.7	9.5	1.7
사회, 과학	1.6	1.5	-6.3	1.1	2.8	1.0	1.2	0.1
제2외국어 등	0.6	0.5	<b>-16.7</b>	0.7	0.5	0.2	0.2	0.3
논술	0.8	0.7	<b>-12.5</b>	0.8	0.5	0.5	0.6	0.0

1) 삼성경제연구소의 '영어의 경제학(전호상·최호찬, 2006)' 자료에 의하면 연간 국내 영어사교육비 규모를 15조원 정도로, 그 중 14조원이 학원 및 개인교습 등의 명목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영어교과 사교육 참여율

○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 56.5%, **영어 55.6%**(전년 동일), 국어 36.1% 순임

○ **초등학생의 62.7%, 중학생 64.1%, 일반고 39.1%** 영어사교육 참여

\* 2007년 영어사교육 참여율 : 초등학생 60.7%, 65.9%, 일반고 40.3%

- 대입을 앞둔 일반고 학생의 영어사교육 참여율보다 **초·중학생의 영어사교육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은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어고 입시열풍으로 인한 것임**. 특히 중학생의 영어 사교육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이 주요 증거임

○ 초등학생은 의사소통(회화)과 외고입시, 중학생은 외고입시를 위한 영어듣기와 영어내신, 고등학생은 수학능력시험과 학교성적(내신)을 위한 영어 사교육 위주

〈표 3〉 일반교과 과목별 참여율

(단위:%,%p)

구 분	2007	2008	증 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참 여 율	77.0	75.1	-1.9	87.9	72.5	53.4	60.5	30.3
- 일반교과	68.4	66.4	-2.0	76.2	68.8	45.3	54.1	16.6
국 어	39.3	36.1	<b>-3.2</b>	44.9	40.1	15.1	18.5	4.3
영 어	55.6	55.6	<b>0.0</b>	62.7	64.1	33.0	39.7	11.2
수 학	58.6	56.5	<b>-2.1</b>	62.6	64.2	36.6	44.4	11.2
사회, 과학	25.6	22.8	-2.8	23.0	35.3	9.1	11.4	1.6
제2외국어 등	14.9	12.9	-2.0	19.7	10.5	2.6	2.4	3.3
논술	10.8	8.4	-2.4	12.8	5.5	3.0	3.8	0.4

□ 해외유학 및 연수비

○ 2005년 기준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집중된 해외유학 및 연수비는 7조 3800억원 (진경애, 2006)<sup>2)</sup>

○ 2008년(1-11월) 영어 해외연수유학경비가 11.5% 감소하였으나 이는 달러 환율 인상과 경기 침체의 영향이며, 원화 부담액은 수치만큼 감소하지 않았음

□ 2009년 상반기 상장된 영어교육전문업체 실적

○ 상장된 영어전문업체인 정상제이엘에스, 청담러닝, YBM시사닷컴, 능률교육, 확인영어사 등 5개 업체의 2009년 상반기 매출은 **15.2% 증가**

2) 진경애(2006). 영어교육 혁신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안보고 OR 2006-2-3.

\* 2009년 8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교육 업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시에 상장된 18개 사교육업체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 영업이익은 10.7% 증가, 당기순이익은 13.6% 증가(내일신문, 2009.9.8)

□ 특단의 영어사교육비 경감대책 필요 (\*특단의 수학사교육비 경감대책도 필요)

○ 영어사교육비 증가추세가 참여정부 이후 2009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표 4〉 2007 사교육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단위:개, 명, 억원, %)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006	2007	증감률	2006	2007	증감률	2006	2007	증감률
일반 교과 학원	32,445	34,544	6.5	133,221	140,057	5.1	41,342	49,727	20.3
<b>외국어학원</b>	<b>9,783</b>	<b>12,647</b>	<b>29.3</b>	<b>51,429</b>	<b>63,861</b>	<b>24.2</b>	<b>19,623</b>	<b>25,988</b>	<b>32.4</b>
기타 일반 교습학원	380	393	3.4	2,959	3,630	22.7	1,866	2,486	33.3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3,041	4,121	35.5	15,180	18,237	20.1	6,444	8,184	27.0
방문교육학원(학습지 등)	3,649	3,232	-11.4	77,421	70,846	-8.5	30,408	28,238	-7.1

\* 자료 : 2007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통계청, 2008)

○ 영어사교육비를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어려움

□ 발제자 문제의식 :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모두 영어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왜 영어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 고교, 대학 입학제도, 정부 영어교육 강화방안을 비롯한 영어사교육 유발 메카니즘과 학교 영어교육 대비능력, 즉 영어교사 양성·연수 등을 통한 교수능력향상 가능성 연계하여 이해 필요

2. 영어 교육혁신과 영어 사교육비 경감 추진의 딜레마 및 과제

□ 영어교육 혁신의 필요성

- 세계화·개방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영어 의사소통과 학습 필요성 증가
- 학교(공교육)의 영어 교육경쟁력 미흡, 고비용 저효율 영어교육<sup>3)</sup>과 학습
- 최근 영어 사교육비의 지나친 증가

3) 진경애(2006)는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으로 학교 밖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 언어학적인 거리,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 부족, 대입시험의 영향으로 말하기와 쓰기교육 약화,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간 능력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영어교육 혁신에 있어 제기되는 딜레마

○ 영어공교육완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경우

- 예상되는 효과 : 영어공교육(학교·교사) 일부 경쟁력 강화, 영어사교육 방향 전환, 학생 영어학습 문화 개선
- 예상되는 부작용 : 영어로 하는 수업(영어수업, 말하기, 쓰기 강화)과 영어능력시험 도입, 해외유학·연수 증가 등에 따른 **영어사교육비 증가**, 영어 교육·학습에서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 확대**, 영어교사·영어교육전공교수·교원단체 **저항·반발 확대**, 단기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 지나친 증가 등 정책의 부작용이 증가하면 **학부모의 반발 확대 가능**

○ 사교육비 우려로 영어교육 개선을 지체·포기할 경우

- 예상되는 효과 : 영어사교육비의 지나친 증가 방지, 저항·반발 방지
- 예상되는 부작용 : 영어공교육 경쟁력 미흡, 영어사교육비 지출 완만한 증가 지속,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독해력 부족 현상 지속

□ 영어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

○ 사교육비 지나친 증가와 영어 학습 격차 확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영어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방안 필요(영어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의 예술 필요)

-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 수요 분석, 영어교육 성격에 대한 연구와 합의
- 영어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영어교육격차, 영어학습격차의 확대 방지 필요  
→ 계층 간 영어격차로 인한 계층격차 확대·재생산 방지

□ 제기되는 쟁점

- 외국어고 입학경쟁을 위한 영어사교육비 축소 방안
-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방안, 말하기·쓰기 강화 방안 등 영어교육혁신방안
- 영어능력시험 도입 여부, 시기, 방법 : 자격고사제, 등급제 도입 여부
- 영어교육 진흥 관련 특별법 제정 여부, 내용
- 방과후학교 영어무상공교육 추진방안 : 단계적 추진방안과가 재원 문제

## II. 영어 사교육비 증가 원인

### 1.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장 비교 (<표 5>)

구분	평등주의		실용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쟁주의
	학벌타파주의 근본적 원리주의	내신강화주의 변형된 원리주의		
기본 관점	학벌경쟁수단으로 서의 사교육 학벌 타파 관점	학벌경쟁수단으로서의 사교육 내신 중시 관점	사교육은 경쟁전략 점수경쟁 완화 사교육대체재 제공	사교육은 공교육 부실 결과 입시학력경쟁필요
사상적 배경	평등주의 지향	평등주의 지향 교육적 관점 교육자 중심	자유·평등의 조화 학습사회 구축추진 학습자·수요자 중심	자유주의 지향 경제학적 관점 수요자중심
주요 단체	학벌없는 사회 민노당 평등주의 인사	전교조,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평등주의 지향 인사	일부 교육계 인사 *사교육실태·메카니즘을 알고 있는 인사들	자유주의 지향성이 강한 일부 인사 (신자유주의)
사교육 수요증대 요인	학벌중심 사회구조 대학서열화	대학서열화 공교육과 무관한 수능·논술 전형	입시경쟁·내신경쟁 강화 학교교육 특성화 부족 학교와 교원의 교육력, 학생 학습력 부족	공교육 부실 평준화로 인한 획일교육
사교육 경감 대책	평준화 유지 대학평준화 사회 구조 혁신	내신비중 강화로 공교육강화 주장 평준화 유지 고교다양화 반대 (외고 일반고 전환) 교원평가, 학교경쟁 반대	공교육 내실화론 평준화 유지·보완, 자율학교와 고교특성화 확대 영어교육 내실화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과 자율학교 지정 학교경쟁 교원평가 주장	공교육 경쟁 강화론 평준화 해체, 전면보완 자사고·특목고 확대 (수월성교육 강화) 외국어고 유지·개선 영어로 영어수업 강화 교원평가, 학교경쟁
		방과후학교 소극 지지 (교과보충수업 반대), 전교조: 수준별 보충 수업 반대, EBS 등 온라인학습 지원도 반대 실질적 대체재 없음	사교육대체재 적극 주장 (방과후학교 전면화, 수준 별보충수업 확대, 온라인, 온오프 블렌디드학습) 무료 온라인학습 유지 초·중 방과후학교 무상화	사교육대체재 소극 주장 (방과후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확대, 온라인학습 지원) 적극 대책 미흡, 온라인학습 유료화 희망
입시 대책	대학평준화	대입·고입에서 내신 비중 강화 고교다양화 반대 자사고·특목고 반대	대입자율화(내신반영 비중 자율화) 고교특성화로 고입점수 경쟁 완화	대입자율화 고입내신경쟁 영어능력시험 자사고·특목고 확대
결과	정책화 되지 않음	참여정부 수용 내신사교육 확대 죽음의 트라이앵글 초래	일부 제안 정책 반영, 사교육비 지나친 증가 둔화 초래	영어사교육, 고입경쟁사교육 증가
평가	근본적 원인분석은 타당하나 현실적 점진적 대책 미흡 현실적 사교육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학생간 내신경쟁 강화로 사교육비 증가 초래, 사교육대체재 제공 부족으로 사교육 시장 확대 초래 학교·교원 교육력 강화 저해	현실적으로 타당한 관점 이지만 이념 대립으로 인해 확산 미흡 인식 부족과 정치적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 쉽지 않음	사교육 대체재는 제공하나, 고입경쟁, 영어경쟁 강화로 사교육비 증대 우려 참여정부시기보다 사교육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 2. 우리나라 사교육의 특징

□ 경쟁 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 : 단순한 학업성취 보충이 아닌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적 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

- 유한구(2005)는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과외비 규모 및 사교육 실태 분석 자료 중 일반계 고교 자료 재분석 결과 '학교교육의 낮은 만족도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중심사회에서 보나 나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진학경쟁이 생기고, 진학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사교육을 활용' 한다고 결론
- TIMSS 자료 분석을 통한 각국 사교육 참여형태 분류(Bake and LeTendre; 2005) : 한국의 사교육 참여형태는 Competition Strategy(경쟁 전략형 사교육)에 속함
-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경쟁과 관련된 과외의 성격이 강함. 특목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걸쳐 과열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증가 됨  
(통계청, 2008;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3.20; 이영호, 2002; 강태중 외, 1997)
- 김지하·백일우(2006)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입시과외가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 이라고 결론

□ 시사점

- ① 입시경쟁전략이라는 사교육 특징을 고려하면, '공교육 강화' 는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 로 귀결되어,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 점수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수요 확대' 를 초래함. 즉, '경쟁 강화로 귀결되는 공교육 강화정책' 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킴.
- ② 내신 비중 강화는 내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내신 사교육 수요를 증대시켜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옴.
  - ▶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 아닌 공교육 내실화' 필요,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③ 입시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전형요소(수능, 논술, 면접)가 등장하였으나 사교육기관에 비해 학교와 교원의 대비능력이 미흡하면 사교육 수요가 증가함.
  - ▶ 전형요소 변경은 학교의 대비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단, 내신 비중 확대 방침은 부작용이 더 많기에 변경 필요
  - ▶ 새로운 전형요소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체재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사교육 수요는 감소함.
- ④ 소수 우수학교 중심의 교육 다양화, 교육력 강화는 해당학교에 대한 입시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 증가를 가져옴.

▶ 특성화학교 확대와 일반계고교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교육력 제고 노력은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옴.

- ⑤ 종합 : ‘공교육에서의 경쟁 강화 아닌 공교육 내실화’ 추구,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및 교육력 신장,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경쟁을 대비한 ‘추가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교육 대체재 제공’ 필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능력 향상’ , ‘계층간 교육·학습 격차 해소 추진’ 할 때 사교육 경감과 부작용 예방 가능

### 3. 최근 사교육비 증가 원인 종합

#### □ 대학·고교 입학경쟁 강화 정책 (참여정부 이후 정책 실패)

- 참여정부 내신 강화: 대학입학과 외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에서 내신 강화, 내신 9등급 상 대평가로 인한 지속적인 사교육비 증가, 내신사교육 시장 대폭 확대
- 정부 대입정책: 수능 문과수학 범위에 미적분 포함, 다양한 능력 개발 위축
- 정부 고입정책 : 특목고 내신강화(참여정부 실패반복), 고교다양화 300, 국제중 영향
- 지속적인 영어교육 수요증가, 영어교육정책 잘못 추진 영향
  - 영어몰입교육 논란, 영어공교육완성 정책, 국제중·외고 확대 영향 : 유아·초등학생·중학생 영어사교육비 증가
- 94학년도 수능도입, 이후 논술 도입, 최근 입학사정관제 확산에 대한 학교 대비 미흡·격차, 다양한 전형요소 요구에 따른 사교육시장 확대, 비용 증가

#### ▶ 대입제도 변화가 사교육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 첫째, 새로 도입된 전형요소나 방식이 학교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
    - 1994년 도입된 수능능력시험과 97학년도에 다시 도입된 논술 초기 학교대비능력 미흡
  - 둘째, 대학입학전형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전형요소가 증가하는 경우
    - 2002학년도 대입자율화 이후, 최근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추가된 전형요소 대비, 정보부족(정보불균형) 해소와 진학컨설팅 사교육, 2005년 이후 수능·내신·논술 3중부담
  - 셋째, 학교에서 대비 가능하지만, 사교육기관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경우
    - 2005년 이후 내신 대비 사교육( 사교육의 효과성 : 내신 > 수능 > 논술)
- \* 내신대비사교육은 가장 대비가 쉽고, 효과가 분명하며, 장기간 지속으로 비용증가 초래

#### □ 학교의 교육력 부족, 교육특성화 미흡

- 분야별·수준별로 특화된 교육특성화 미흡: 학습자·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 미흡
- 교원 동기부여 미흡: 학생교육에 대한 교사열의 부족, 열의를 꺾는 교원정책



- 학교와 교원의 교수학습 개선 미흡
- 학교의 학생을 위한 학습동기 부여, 학습관리 부족 : 학생·학부모의 자기주도학습력 요구, 학습관리·학습지원 요구 경시
- 학교의 진로·진학컨설팅 부족 : 학생의 진로교육, 진학컨설팅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책임 미흡
- 새로운 입학전형에 대한 학교·교사 대응력 부족 : 90년대 중·후반 이후 수능과 논술,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

□ 학교의 사교육 대체재 제공 미흡 → 사교육비 경감 효과 미흡

- 방과후학교 확산 미흡 : 초등 저학년 탁아수요 충족 부족, 초중등 교과 수준별 보충수업 제공 미흡, 고교 학생 자율성 전제한 수준별 보충학습 제한
- EBS 수능강좌 서비스의 한계 노출 : 수능 사교육비 경감에는 상당히 기여했으나, 초·중 학생 콘텐츠 부족, 특목고 전형대비, 내신 대비 콘텐츠 부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관리 미흡,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빈약

□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부족(학생·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의식)

-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부족 : 사교육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
  - 학교교육과 온라인·오프라인 사교육 모두 교수자 중심의 교육제공에 그치고 학습자의 학습동기 부여, 학습목표 설정, 학습관리, 학습지원 미흡
- 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사교육 의존: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소홀

□ 사교육 공급자의 과다 이윤 추구하고 상대적인 경쟁력 (\*별첨자료 참조)

- 일부 학원·교습소의 불법·편법·고액 학원비 징수 사례 온존
- 초중등교육 단계 온라인 사교육기관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 관리·규제 부재
- 학원 운영체제 : 수준별 교수학습, 개별학습, 학원·강사선택권(지역단위, 온라인은 전국단위), 학원간 경쟁, 체제 유연성(변화에 대한 적응력), 온라인학원 '규모의 경제'
- 관리 체제 : 학원 차원에서의 학생 학습관리시스템, 학부모 관리·협력시스템 강화
- 강사의 조건 :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상시적인 학생·학부모 평가와 도태), 강사의 노력·투자자와 보상의 직결, 강사의 계층화, 강사 간 끊임없는 모방과 경쟁, 오프라인은 지역단위, 온라인은 전국단위 학습자 수요 존재 → 강한 동기부여

\* 교사는 입직준비기간 외에는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동기 부여 미흡

- 학습자 수요에 맞춘 강의 및 교수방법 : 지식습득 중심 내신대비, 원리·이론 이해와 적

용을 비롯한 사고력 중심 수능대비, 토론·침사 중심의 논술·면접, 학습력 부족 아동에 대한 학습관리, 진로 혼란 및 대학 진학정보 부족 학부모를 위한 진로 및 진학 컨설팅

- 핵심 경쟁력 : 학습자 수요에 맞춘 학원과 강사의 교육력, 철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수준별, 개별학습 고려), 학부모관리시스템
- 영어사교육의 특징 : 많은 시간 영어사용환경 노출 필요, 조기교육효과 맹신, 특목고입시 대비, 대입대비, 취업대비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 소수 그룹지도·개인지도 선호, 특히 말하기·쓰기 등은 소수 그룹지도·개인지도가 효과적. 그러나 학교의 영어교육력, 영어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미흡

#### 4. 최근 영어사교육비 증가 원인

▶ 영어사교육비 증가원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분석(2009)

- 영어 사교육비 증가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어학 연수 수요의 국내 흡수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강화된 영어 공교육 정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초·중·고등학교 영어인증시험(토플/ 토익/ 텡스) 응시자 수 증가 추이:**

2005(113,077명) → 2006(139,197명, 23.1% 증가) → 2007(220,673명, 58.5% 증가)

#### □ 영어공교육 완성방안 중 영어수업과 말하기·쓰기 정책(영어공교육)의 영향

▶ 추진 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말하기·쓰기 보완 정책
  - 2010년 3-4학년, 2011년 3-6학년이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실시
  - 2010년 중3, 고1학년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을 본격화하여 2012년 중, 고교 모든 회화 중심수업을 영어로 실시

○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교육과학기술부, 2008)

-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 현 3,4학년(1시간), 5,6학년(2시간) ⇒ 3,4학년(2시간), 5,6학년(3시간)

- 2010년 3, 4학년, 2011년 5, 6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 **영어 사교육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우려·불안 요인**

- '영어를 영어로만 수업' 하면 내 자녀가 영어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지 않을까?
-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일부 단체는 '영어우열반' 으로 왜곡) 확대되면 내 자녀가 열반으로 가서 상처받지 않을까?
- 앞으로 영어수업시수가 많아지고, 말하기·쓰기까지 도입되면 대학입시에서 영어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 국가영어능력시험이 도입되면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 대비하게 해주지 않을까?

- 영어로만 수업하는 영어수업시수 확대(초등), 모든 회화중심수업(학부모 오해 결합하여 모든 영어수업으로 인식) 영어로만 수업,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학부모 불안과 사전 대비 욕구 자극**
- 말하기·쓰기 보완, 영어로만 수업 → **영어 어학원, 전문학원에서 읽기, 듣기에 추가하여 말하기·쓰기 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인식되는 상황 초래**
- 영어공교육 강화 → 입시에서 영어 비중 증대, 영어점수 경쟁 강화, 학부모·학생 심리적 불안 증대 → **영어 사교육비 대폭 증대**
- **결과 : 현재 초·중학생의 영어 사교육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유아교육에까지 영어 사교육 수요를 확대시키는 중.** 특히, 영어 듣기·말하기·쓰기는 오랜 영어노출시간이 필요로 하기에 **영어 사교육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큼(단위과목 당 사교육비 증가)**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제도 도입의 영향

▶ 추진 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 문제풀이 위주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실용 영어가 강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도입
  -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
  - 현재의 수능 영역인 읽기·듣기는 등급제로 평가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말하기·쓰기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합격·불합격으로 평가
  -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은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상시시험으로 운영
- 2013학년도~2014학년도 대학입시(올해 중2, 중1 학생)에서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4개 영역 중 듣기·읽기 영역만 평가
  - 2015학년도 대학 입시(올해 초 6학년생)부터는 4영역 모두 평가

○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 수능시험 도입, 수능등급제과 시행의 부작용 우려

- **초등학생 영어사교육비 증가 유발** : 평가와 교육의 방향 전환은 교육적으로 매우 타당하였으나 2015학년도 이후 대학입시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은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영어사교육 수요 증대 유발
- **학교 교육력 불신** : 실용영어는 현실적으로 학교보다 학원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 평가시험을 중학교 때나 고1·2 때 패스하기 위해 영어조기사교육 확산
- 말하기·쓰기는 영어방송, 인터넷 수업보다 면대면 교육이 더 효과적이기에 영어방송, 인터넷 수업으로도 대비하기가 어려울 가능성 있음
- \* 대입 수능 사교육 증대는 EBS 인터넷방송으로 사교육을 약화시켰으나 영어 말하기·쓰기는 EBS 영어방송, 인터넷방송 확대하더라도 효과 미흡 우려

- 영어능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경우 영어 대학별고사 확대 우려
  - \* 이 경우에는 영어능력시험 자체의 변별력이 없어지기에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주여 대학은 대학별고사에서 영어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추정됨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실시 경우에는 변별력 약화로 대학별영어시험 등장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추가 증가 우려
  - \* 수능등급제는 수능 변별력 약화를 초래하고 논술비중을 높여 논술사교육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추진방안(2008. 12) :

- 필요성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필요, 해외시험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한국형 영어능력평가시험 필요, 읽기·듣기 위주의 학교 영어 평가방법 개선 필요
- 목적 :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통해 해외 영어시험(TOEIC, TOEFL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국가수준의 학생용(고등학생 및 대학생) 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하여 입시, 취업, 유학 등에 활용
- 기본 방향
  - 【1단계】 수능 외국어영역은 현행 수능체제를 유지
  - 【2단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학생용 영어능력시험으로 개발하여 입시, 취업, 유학 등에 보조적으로 활용
    - 활용 : 자발적인 영어능력 측정에 활용하되 1등급은 대학 2~3학년 수준으로 개발하여 졸업 시험·취업·해외유학 등에 활용, 2~3등급은 고등학생용 개발하여 대학입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
  - 【3단계】 시험공신력,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수능대체 여부 결정(2012년)
- 방침 변경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 증대 우려는 일부 약화된 상태임. 다만, 수능대체 결정(12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도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학입학사정관제 확산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결과의 전형요소화 가능성이 맞물리면, 영어사교육비 증가를 더 가져올 수 있음

□ 외국어고 입학전형 관련 사교육 증가 유발 관계

- 영어 듣기평가 및 면접 ⇒ 영어 전문학원 사교육 확대 초래
- 내신 비중 전면 확대(외고 약 두 배 확대) ⇒ 전과목 내신 사교육 확대 초래
- 외고 수학·과학 가중치 부여 ⇒ 수학·과학 전문학원 사교육 확대 초래
- 이러한 특목고 입시구조에서는 고교서열화, 고교입시경쟁, 사교육 수요 증가, 중학교 교과지식 위주 교육이라는 파행을 극복하기 어려움

2010학년도 서울지역 특목고 내신 실질반영비율

계열	학교명	전형 종류	전 체 모집인원	해당전형 모집인원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총점	내신 점수	내신 최저점수	실질 반영점수	실질 반영률	실질 반영률	실질 반영률
외고	대원외고	일반전형	420	312	400	250	0	250	62.50%	50.00%	33.00%
	대일외고	일반전형	420	315	200	110	0	110	55.00%	45.00%	42.67%
	명덕외고	일반전형	420	307	400	300	80	220	55.00%	50.00%	31.50%
	서울외고	일반전형 1단계	350	120	240	140	0	140	58.33%	52.38%	51.43%
		일반전형 2단계		115	140	70	0	70	50.00%		
	이화외고	일반전형	210	160	340	240	38	202	59.41%	41.18%	32.06%
	한영외고	일반전형	350	275	200	120	0	120	60.00%	45.00%	33.00%
소계			2170	1604				57.18%	45.58%	31.95%	
과학고	한성과학고	일반전형	140	70	215	170	0	170	79.07%	84.16%	85.00%
	세종과학고	일반전형	160	83	215	170	0	170	79.07%	80.95%	85.00%
	소계		300	153					80.00%	83.37%	85.00%
국제고	서울국제고	일반전형	150	75	340	290	0	290	85.29%	85.29%	82.86%

\* 출처: 한겨레신문(2009.2.15)

□ 참여정부 시기 내신 사교육비 증가 현상과의 일부 유사점

○ 참여정부 내신 강화 정책 기본 논리 검토

- 사교육 증가 원인을 공교육 부실, 수능 사교육 수요로 인식
- 사교육 대책으로 내신 비중 확대하고 수능 비중 낮추어 공교육 강화하면 사교육 축소될 것으로 오판(誤判)
- 실제 결과 : 내신 경쟁 강화로 내신 사교육 확대, 수능 변별력 약화로 논술경쟁 강화되어 논술 사교육 증대

○ 영어 공교육 강화 기본논리 검토

- 영어 사교육 원인 : 영어 공교육 부실
- 영어 사교육 대책 : 영어공교육 강화(영어로 교육, 말하기·쓰기 도입, 능력시험)
- 실제 결과 : 고교·대학 입학경쟁에서 영어점수 경쟁 강화, 사교육 수요 증가

○ 공통적인 사교육 증대 원인 : 의도·기대와는 달리 공교육에서의 점수경쟁 강화를 유발하여 사교육 수요 촉발

○ 정책 목표 달성 실패 원인 : 사교육 수요 증대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이해 미흡, 교원 양성기관(교대·사대)과 초중등학교(교원) 및 사교육기관의 대응능력에 대한 현실적 분석 미흡, 학생·학부모의 불안 요인 고려 부족

### III. 영어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방향 및 핵심대책

〈표 6〉 사교육의 원인과 대책의 방향

사교육 수요 증대 원인		⇨	사교육 대책 핵심 방향 및 과제	
대입·고입 입시경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정부 수능 경쟁</li> <li>■ 참여정부 내신·논술</li> <li>■ 자사고·특목고(특히 외고) 입시경쟁 강화</li> <li>■ 점수·석차 경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경쟁, 내신경쟁</li> <li>- 인문사회계열대입에서 수학 과다학습</li> </ul> </li> </ul>	⇨	대입·고입 입시경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고입에서 내신점 수경쟁 완화</li> <li>■ 특목고 입학경쟁 축소</li> <li>■ 일반계고교 교육 다양화·특성화를 우선추진</li> <li>■ 영어경쟁 완화, 수학 과다학습 축소,</li> <li>■ 적극적차별 정책 확대</li> </ul>
학교교육력부족 (교육특성화미흡 대체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 학교교육</li> <li>■ 아동보육 수요 미충족</li> <li>■ 영어교육 부실</li> <li>■ 예체능교육 부실</li> <li>■ 수준별학습 부실</li> <li>■ 교사교육력·열의 부족</li> </ul>	⇨	학교교육력신장 (교육특성화, 교수학습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된 학교교육</li> <li>■ 아동보육 수요 충족</li> <li>■ 영어교육 내실화</li> <li>■ 예체능 집중교육 확대</li> <li>■ 수준별학습 부분 확대</li> <li>■ 교사교육력·열의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대체재 부족 (정부 지원 부족과 학교교사 반대 영향)</li> <li>* 교육격차 확대</li> </ul>	⇨	* 경쟁강화 아닌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대체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대체재 확대 (EBS, 방과후학교, 수준별보충수업, 연계학습)</li> <li>* 교육격차 해소 강화</li> </ul>
자기주도학습력 부족 (공·사교육 공통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식·주입식 교수</li> <li>■ 지식 암기식 학습 (지식기반사회에서 무용)</li> <li>■ 자기주도학습인식부족</li> <li>■ 교육콘텐츠 제공 위주</li> <li>■ 온라인교육 활용 부족</li> <li>■ 온오프연계학습 부재</li> </ul>	⇨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공·사교육 공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지원·촉진 위주</li> <li>■ 강의+토론·탐구식교수</li> <li>■ 핵심역량학습, 탐구·창의학습(창의적 지식인)</li> <li>■ 자기주도학습인식확대</li> <li>■ 온라인교육 개선·확대</li> <li>■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 위한 온오프연계학습</li> </ul>
사교육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효율적 경쟁시스템</li> </ul>		공교육 개선	타당·합리적 장점 수렴

〈표 7〉 영어무상공교육, 영어교육혁신을 통한 영어사교육비 경감대책 방향

사교육 대책 핵심 방향 및 과제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입·고입 입시경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고입에서 내신점수 경쟁 완화, 내신절대평가</li> <li>■ 특목고 입학경쟁 축소</li> <li>■ 영어경쟁 완화, 수학 과다학습 축소</li> <li>■ 일반계고교 교육 다양화·특성화를 우선추진</li> <li>■ 적극적차별 정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모집단위별 특성화전형, 내신 부담 경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모든교과 사교육비 공통사항)</li> <li>■ 외국어고 체제개편(특성화고 전환), 입학전형 개선</li> <li>■ 영어로만 수업하는 방침 완화 : 과도적: 우리말 병행수업, 영어전용수업 병행, 학생 선택 유도</li> <li>■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하되 자율반영 단계를 거친 후 성과 검토하여 전면반영 여부 결정</li> <li>■ 우리나라 영어교육 수요조사·연구 후 독해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균형 있는 교육 추진</li> </ul>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교육격차 해소 (학교 유연성) (경쟁강화 아닌 공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된 학교교육</li> <li>■ 아동보육 수요 충족</li> <li>■ 영어교육 내실화</li> <li>■ 예체능 집중교육 확대</li> <li>■ 수준별학습 부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고 등 소수학교만이 아니라 일반중·고교 외국어(·국제)특성화교육과정 개설·운영 확대 → 교육과정 개정에 최대한 신속 반영</li> <li>■ 영어교수학습, 평가방법 개선 추진</li> <li>■ 영어교육과정·교과서 개편 추진</li> <li>■ 영어 수준별학습 확대: 방과후학교부터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교육력·열의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교원양성, 임용, 연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임용시 영어수업능력 비중 확대, 교대·사대 영어교육 개선, 교원연수 결과 인사반영</li> </ul> </li> <li>■ 교원 영어능력평가시험(우선 의무응시), 연수성적, 학생만족도 기준 달성시 인센티브 도입</li> <li>■ 연수기준 미달 교사 재연수·휴직 기회 부여, 미개선 시 행정교사로 배치 검토</li> <li>■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한 교수법 등 연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대체재 확대 (EBS, 방과후학교, 수준별 보충수업, 연계학습)</li> <li>■ 학교 방학시스템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영어무상공교육 도입 : 단계적 도입</li> <li>■ 온오프연계 영어교육프로그램 확대 : EBS활용</li> <li>■ 영어학습포털 확충, 영어학습지원센터 운영, 전화·화상영어 서비스, 영어친화적 환경 구축</li> <li>■ 외고 등 우수영어교사 현장강의 온라인 제공</li> <li>■ 거점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내실화</li> <li>■ 방학운영제도 개선: 방학 중 교사 출근(1/2), 희망 학생 기본수당이나 무료로 영어학습지도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격차 해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학교 영어무상공교육 우선 제공, 온오프연계학습 확대</li> <li>■ 농산어촌 거점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우선 개설·운영, 영어교육요원 우선 배치</li> <li>■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 학습관리서비스 시행</li> </ul>
자기주도 학습 태도·능력 신장 (공·사교육 공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지원 위주 교육</li> <li>■ 강의+토론·탐구식 교수</li> <li>■ 온라인교육 개선·확대</li> <li>■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위한 온오프블렌디드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도 영어학습능력 신장 추진</li> <li>■ 자기주도학습력 향상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온오프연계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 영어교사·강사, 방과후 영어교육요원의 자기주도학습 지도방법 연수·인증 실시</li> </ul>

1. 대학입학전형 : 모집단위별 특성화, 내신절대평가 도입과 지나친 내신부담 경감  
(이상 교과 공통), 학생선발 시 외고 특혜 폐지(영어교과 해당)

□ 대학 모집단위별 특성화전형 정착(교과 공통, 특히 수학 사교육비 경감)

- 교과부, 대교협의 모집단위별 전형 특성화 정착 유도 :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모집단위별로 수능내신 반영과목과 반영비율을 차별화하도록 유도 → 교과부의 대입전형 평가기준 비중 확대
- 계열별 특성화 : 인문사회계(상경계열 예외)는 수학 대폭 축소,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자연계는 국어 또는 영어(일부 학과)의 반영 비중 축소 권장 → 특히, 수학·영어 과잉학습, 과열사교육 차단(실질적인 수능과목 축소 효과)
- 모집단위별 전형 특성화 추진방안 : 대학 전공학습을 계속하기 위한 고교의 선수학습과목을 모집단위(전공영역)별로 대입전형 반영과목으로 설정하여 공개, 공개된 핵심 전형요소(핵심과목, 핵심능력, 핵심경험)만을 반영한 전형 실시
- ※ 교과부·대교협 차원에서 방침 협의·결정 및 강력한 시행 추진 필요
- 현재 주요 대학이 인문사회계열 전형에서까지 수학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어 고 입학전형에서 수학·과학에 가중치를 두며,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실적을 높이고 있음

〈표 8〉 주요대학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영역의 계열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국어
서울대	인문사회	22.2	27.8	22.2	22.2	5.6
	자연	23.5	29.5	23.5	23.5	0
	예능일반	33.3	0	33.3	33.4	0
	디자인·작곡	28.6	14.2	28.6	28.6	0
고려대	인문사회	28.6	28.6	28.6	14.2	0
	자연	28.6	28.6	28.6	14.2	0
	예능	50	0	50	0	0
	체능	28.6	28.6	28.6	14.2	0
성균관대	인문사회	20	30	30	20	0
	자연	20	30	20	30	0
	예능	50	0	50	0	0
	체능	40	20	40	0	0
연세대	인문사회	28.6	28.6	28.6	14.2	0
	자연	20	30	20	30	0
	예능	50	0	50	0	0
	체능	28.6	28.6	28.6	14.2	0
이화여대	인문사회	30	25	25	20	0
	자연*	(30)	40	(30)	30	0
	예체능	언어외국어 중 1영역 40%, 그 외 2영역을 택하여 각각 30%				0
중앙대	인문사회	20	30	30	20	0
	자연	15	30	30	25	0
	예능	50	0	30	20	0
	체능	50	0	50	0	0
한양대	인문사회	20	30	30	20	0
	자연	15	30	25	30	0
	예체능	40	0	40	20	0



□ 내신부담 경감: 내신 반영 비율 적정화, 내신 절대평가 전환

○ 내신 반영 비율 적정화 (지나친 내신반영 비율 축소)

- 참여정부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내신 반영비율 적정화 : 내신 반영은 종합적 반영 방식 (내신+수능+논술)이 아닌 내신(학생부) 중심 전형 방식으로 반영
- \* 수능과 내신의 사교육 유발 효과 비교 : 현재 수능 반영비율이 높아 수능사교육 수요가 좀더 많은 뿐임. 수능과 내신 두 가지 전형요소를 비교하면, 과목과 기간, 횟수를 고려할 때 반영비중이 동일하다면 내신 사교육비가 더 들고, 내신 사교육수요가 더 높을 것이 분명함(사교육의 효과 : 내신 > 수능 > 논술)
- \* 수능의 사교육대체재 제공 가능성 : 수능은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이기에 EBS 수능 인터넷방송, 강남수능인터넷방송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대체재 제공이 가능하며, 오히려 계층별 교육격차, 학습격차 해소가 용이하고, 지역별 격차도 차츰 개선될 수 있음
- \* 학교의 수능 대비능력 향상 : 수능이 1994학년도에 도입된 이후 학교·교사들의 대비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음

○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평가학회의 전문가, 고교교사들의 참여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해 절대평가를 위한 교과별 측정영역과 평가준거 설정
- \* 측정영역과 평가준거는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 필요
- 교사는 객관화된 평가준거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수행
- 학습자 능력과 성장 정도를 참조하는 서술식 평가 보완
- 예체능 3단계 절대평가 방식은 현행 유지

〈표 9〉 기준, 준거, 능력, 성장참조평가 비교(성태제, 2005)

내용/구분	상대비교평가 (규준참조)	절대평가 (준거참조)	능력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
강조점	상대적인 서열	특정영역의 성취	최대능력 발휘	능력의 변화
교육신념	개인차 인정	완전학습	개별학습	개별학습
비교대상	개인과 개인	준거와 수행	수행정도와 소유능력	성장, 변화의 정도
개인차	극대화	극대화하지 않으려고 함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이용도	분류, 선별, 배치 행정적 기능 강조	자격부여 교수적 기능 강조	최대능력발휘 교수적 기능 강조	학습 향상 교수적 기능 강조

○ 내신 절대평가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모든 교과 공통적)

- 첫째, 절대평가는 학생 간 서열등급 경쟁을 완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임
- 둘째, 절대평가는 지식암기 수업보다 탐구학습,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을 중시하여 단기 암기식 사교육으로 대비 어려움. (공·사교육 질 향상)
- 셋째, 절대평가로 바뀌면 학교시험의 난이도가 적정화되기에 내신 난이도가 낮아져 사교육 수요 일부 경감
- 넷째,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간 교육경쟁, 교사간 교육경쟁을 요구하고, 촉발시키고 그 결과 학교의 교육력이 높아지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음
- 다섯째, 절대평가 제도와 대입제도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더 높아짐. 즉, 수능 또는 논술 위주 전형의 경우 내신상대평가로 인한 부담은 더욱 감소하고 사교육 기간도 짧아져 내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음.

□ 학생선발 시 외고 특혜 부여 금지 → 외고 입학경쟁, 영어사교육비 축소

-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외고 졸업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형을 개발·적용하거나, 일반전형에서 외고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외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이를 위한 영어사교육비를 유발할 수 있음
- 입학사정관 전형의 결과 외고 졸업생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외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이를 위한 영어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외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이를 위한 영어사교육비를 증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서 외고 졸업생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함. 이에 특혜 논란 발생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됨

2. 외국어고 체제개편(특성화고 전환), 입학전형 개선

□ 외국어고 고교 입학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외국어고 입학전형(학생선발) 방식이 사교육 증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내신 비중 전면 확대(외고 약 두배 확대) ⇒ 전과목 내신 사교육 확대 초래
    - ※ 지난 3년간 특목고 입시에서 중학교 전과목 내신반영률이 계속 증가하여 왔음  
(내신 실질반영률 : 2008학년도 32%, 2009학년도 45.6%, 2010학년도 57.2%)
    - ※ 5개교과 반영비율 72.8%, 기타과목 반영률 27.2%, 영어·수학·과학 가중치 부여
  - 외고 수학·과학 가중치 확대 ⇒ 수학·과학 전문학원 사교육 확대 초래
  - 영어 듣기평가 및 면접 ⇒ 영어 전문학원 사교육 확대

-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학생들은 평상시에 종합학원에서 국·영·수·사·과 사교육을 받고, 영어와 수학은 전문학원에서 공부하고, 시험기간에는 기타 과목 까지 사교육을 받음.
  - 다양한 분야 우수인재(영재) 육성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어·영어를 잘해도 외고를 못 가고, 수학·과학을 잘해도 과학고를 못 가니 학생의 다양한 적성·능력·흥미·진로를 반영하여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인재 육성을 저해
  - 특목고 교육과정 왜곡 : 현재 특목고는 ‘특수분야의 전문교육’ 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외고는 전 과목 최우수 학생들로 구성된 우수 입시학원으로 변질되어 있음
  - 대입전형 왜곡, 고교·대학 서열화 초래 : 외국어고는 단순한 특수목적학교가 아니라 대입에 유리한 우수학교로 인식되어, 고교서열화, 초·중학생 외고 입시경쟁과 내신사교육비 증가, 교과지식 암기교육 강화를 초래하고 있음.
  -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 통로로 작용 : 소위 ‘일류대’ 대학입학전형에서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 통로로 고착화·제도화될 우려가 있음.
    - 중상류계층 자녀 :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입시대비 사교육 ⇒ 상위서열 고교 입학,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스펙 갖추기 맞춤형 사교육·진학컨설팅 ⇒ 상위서열 대학교 입학 ⇒ 학벌을 통한 사회적 계층·지위획득
    - 서민계층 자녀 : 사교육 수요 감당 어려움 ⇒ 중하위서열 고등학교 입학,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어려움 ⇒ 중하위 서열 대학교 입학 ⇒ 사회적 지위 획득에서의 차별
  - 학교서열화(과고·특정자립형사립고-외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 우려 증가
    - 외고우위 서열구조화로 자율형사립고와의 창의적 교육경쟁구조 성립 불가능
  - 종합 : 성적 수준,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사교육비 증가 우려, 교육을 통한 계층간 대물림 확대 우려,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시급한 단기대책(특성화고 전환 이전) : 경과조치로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대폭 제한(2011학년도까지 1년 적용 검토)
- ‘특수분야의 전문교육’ 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제도 도입
    - 내신 반영 대폭 제한 : 내신을 반영할 경우에는 외국어고는 외국어, 국어, 사회만 반영,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
    - \* 전과목 또는 주요 과목 반영이나 외고의 수학과 과학 반영 금지
    - 외국어고 영어듣기시험 폐지
  - 자율형 사립고는 ‘先지원-後추첨’ 방식 선발 정착
    - 2010학년도 현재 내신상위 50%라는 지원조건 부여한 상태임

※ 2010학년도 이후, 고입경쟁과 사교육비, 각 학교의 교육개선 노력 등에 미치는 정책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 제한 없는 ‘선 지원, 후 추첨’ 선발 방식 적용 등 개선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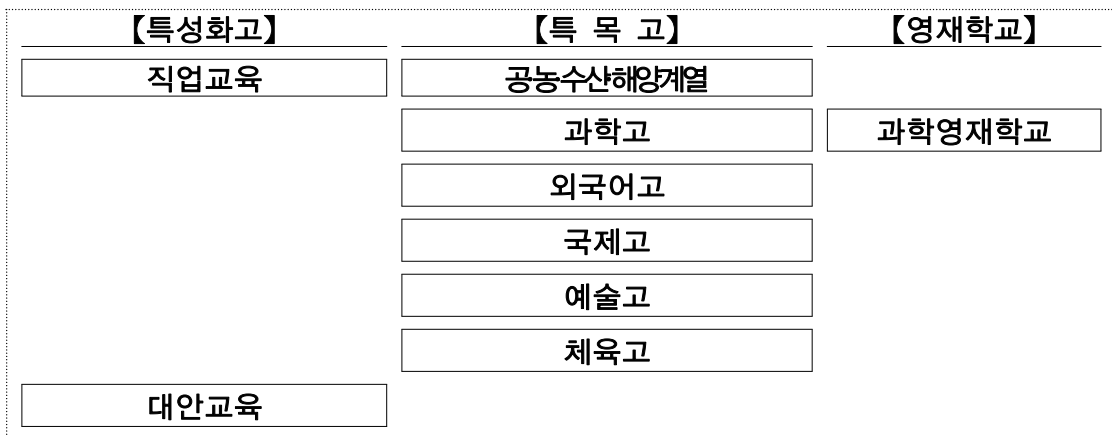
○ 그럼으로써 특목고·자율형사립고가 우수학생 ‘선발경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경쟁’에 전념하도록 유도함

□ 근본적인 대책(외고 개편) : 특목고 선발방식 개선, 고교 체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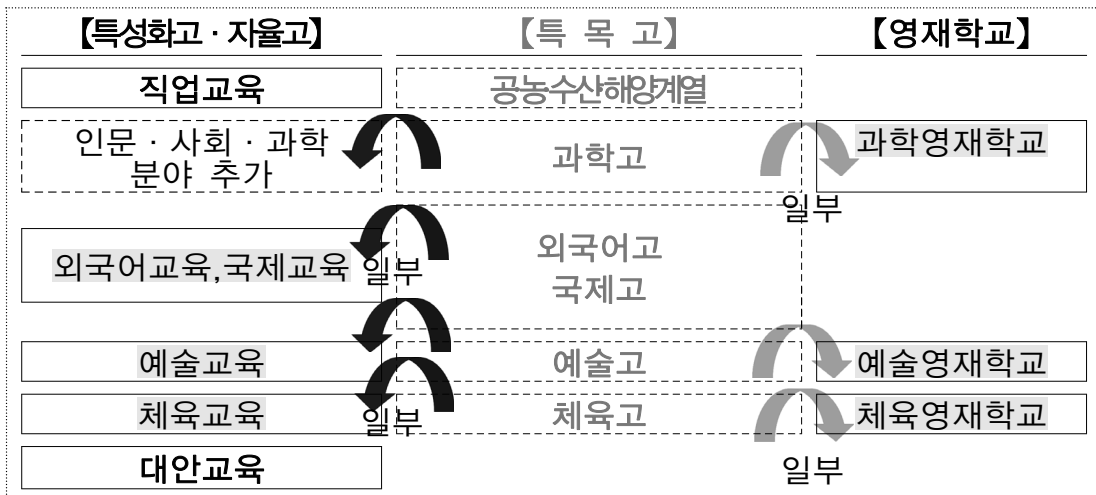
(학생 선발 방식이 가장 중요, 선결되어야 할 과제)

○ 근본 대책 : 과학고는 현재 설립목적은 잘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영재학교로 재편하고, 외국어고는 외국어특성화교육을 실시하는 자율학교이자 특성화고(운영상 특례인 ‘자율학교’ 지정)로 개편(고교체제 변화 폭에 따라 준비기간 차이)

〈2009년〉 현행 체제



〈 특목고를 특성화학교로 전환, 자율학교로 운영 〉



※ 특성화고 중 외고, 국제고, 과고, 기타 인문사회계열고교를 자율학교(공·사립) 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운영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성 지원 가능

○ 학생 추천 선발권 : ‘선 지원 후 추천’ 방식 적용(2012학년도부터 적용)

- 자율학교, 자율형사립고와 비교하여 독점적인 선발권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 다양화, 특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다양화가 아닌 서열화로 귀착 우려

※ 외국어고교 학생 선발방식(외고입시)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 과제.

○ 수월성을 위한 영재교육 진흥 방향 : 외국 주요국 사례 반영한 방안

- 수학·과학, 예술·체육영재 육성을 위한 별도 영재학교 운영 : 영재 판별방식과 절차 개선하여 선행학습 사교육 유발 효과 못 미치게 조치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초·중등학교에서는 영재학급 별도 운영, 주1~2회 외부 특별 영재 프로그램 참여, 방과후 영재교육프로그램 및 주말학급으로, 고교단계에서는 대학제공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

[참고] 참여정부 특목고 개편안(2007.10.29)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현행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한다는 개편 구조

\* 양자의 목적상 별다른 차이가 없어 통합 자체는 합리적인 체제 개편임

○ 차이점 :

① 조건 : 지금은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인하여 특목고 외에도 자율형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2007년 당시에는 다양성이 제한된 상태였음

② 내용 : 단지 특성화고로의 통합(참여정부)이 아니라 자율학교(공·사립) 또는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운영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여 특성화교육을 지원함. 즉, 일방적 규제방안이 아니라 정상적인 특성화교육 지원대책임

③ 방법 : 참여정부 방안은 단지 개괄적인 ‘안’ 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고 어떤 형태의 시행령 개정안이나 법 개정안도 전혀 없었지만, 현재 제시된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있음

④ 절차 : 참여정부 방안은 대선 2개월 직전에 급히 제기되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효성이 없었으나 현재 방안은 상당한 논의와 문제제기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음

[참고] 특성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 : 대학 모집단위별 특성화전형

○ 문제점 : 대학 모집단위별 특성화전형이 안 되고, 대부분 획일적으로 국영수 도구과목을 전형요소로 요구할 때에는 가장 효과적인 ‘대입경쟁전략’으로서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만연할 것임.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확일화’가 우려됨

○ 특성화교육 조건 : 대학 모집단위별 특성화전형이 전제되어야 특성화교육이 유리한 대입 경쟁전략이 되어 특성화교육과정·특성화학교가 활성화될 것

## 3. 영어공교육완성정책 효과적으로 조정·정착 :

영어 점수경쟁 완화를 통한 영어사교육 수요 축소

## □ 우리나라 영어교육 수요조사·연구 추진

-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해도, 모든 국민에게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지, 의사소통능력과 독해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집단에게 각각 의사소통능력과 독해력이 좀 더 필요한지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영어교육 내실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대학생들에게 전공분야 수학에 필요한 능력으로는 독해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영어교육 혁신 방안과 대학의 요구 및 대입전형 방향 사이에 일부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대입전형에서는 독해와 듣기 중심인 영어수학능력평가시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하되, 과도적 단계로 대학이 자율적·선택적으로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을 요구하도록 하되,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영어를 영어로만 수업하는 방침을 완화하면서,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

- 초등과 중등 모두 학생과 교사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초등은 유보하고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 개발 필요, 중등은 회화 관련 영어과목 중에서도 학생이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 추진
  - 기존 : ‘모든 회화 중심 수업 영어로 실시’
  - 조정(과도적 방안) : ‘우리말 병행 영어회화 수업’ 과 ‘영어 전용 영어회화수업’ 을 함께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 가능하게 과목 개설
-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영어전용수업) 방침이 완화되어 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줄어들면 영어전용교사 인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음. 교사가 영어전용 수업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이 추진될 수 있기에 이러한 영어전용교사(가칭) 인증제 도입이 먼저 필요함
  -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영어전용수업)과 영어전용교사 인증제 도입을 별개 추진
  - 모든 영어교사, 초등교사가 학생발달에 따른 영어교수능력 구비하도록 지원
- 추가 대책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상황·방법을 적용한 우수 영어전용교사의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보급, 재가공 후 온오프 연계학습 자료로 활용
- 방과후학교 수준별 영어 수업 확대, 방과후학교에서부터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 도입, 방과후 학교 수업과 온라인 원어민교사 영어교육콘텐츠(듣기·말하기·쓰기 콘텐츠 포함)를 연계한 온·오프 연계학습 방안 도입 추진

- 국가 영어능력평가지험제도 도입 방안 : 학교교육 능력 향상 정책과 함께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도입 추진
  - 영어능력평가지험 도입하더라도 자율 반영 단계를 거친 후 성과를 검토하여 전면 도입 여부 결정
  - 영어능력평가지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설하는 방안이나 등급만 제공하는 방안은 변별력 약화를 가져와 대학별고사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음
  - 다만, 영어능력 등급제를 도입하다고 해도 원점수를 함께 제공해야 활용 가능성을 높이되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음.
  - 영어능력평가지험 도입하고, 이를 영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표로 활용, 국내 영어실력 검증을 위한 공인기준으로 활용
  -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 하나의 통합적인 외국어 교육목표와 성취 수준 제시 필요
    - 학교급을 고려하여 단계와 수준을 구분하여 제시

#### 4. 초·중학생 방과후학교 영어무상공교육 단계적 추진 방안

##### 가. 초·중학생(의무교육 대상) 영어 무상공교육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 영어 무상공교육 정책목표

- 영어사교육비 경감과 영어능력 신장
  - 영어 사교육 없이도 대학입학과 기본생활영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역 간, 계층 간 영어교육격차 해소 : 영어 능력격차로 인한 계층 분리 극복
- 학습지도능력 우수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
  - 전일제·시간제 영어 전용교사 확대 고용
- 학교 영어교육 혁신 지원·촉진

###### □ 방과후학교 영어무상공교육 추진방안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추진, 영어를 시작으로 전국민 지식공유(나눔) 실현
  - 1단계 :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무상공교육, 농산어촌 초중고교 영어교육시설 개선, 초·중·고학생 대상 영어 u-학습체제 구축, 대학생·성인 영어 u-학습체제 구축(별도사업)
  - 2단계 : 초·중학생 영어 방과후 무상공교육, 초·중학교 여타 방과후프로그램 무상공교육 확대, 전체 초중고교 영어체험학습시설 등 영어교육시설 개선, 대학생·성인

- 3단계 : 초·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고등교육·평생교육 분야(별도사업 연계 추진)까지 폭을 넓혀 생애 단계별 모든 학습컨텐츠, 지식컨텐츠 공유·나눔 정책 추진

○ 초·중등학교 영어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 지원

- 2010년 ‘사교육 없는 학교’ 부터 일부 시범운영 : 기존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 2011~13년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무상지원
  -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영어교육 실시
- 2014~16년 중학교 영어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무상지원
  -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영어교육 실시 확대
- \* 영어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지도강사 비용 정부 지원
- 2017년 이후 고등학생 확대 여부 결정

〈표 10〉 교육과학기술부(2009) 산출액과 근거

구분	2011~13(연간)	2014~16(연간)
현 수준(전체 약 6%)	2,400억(초24만)	3,200억(초24만, 중16만)
학생 중 희망자(약 50%)	1조8,200억(초182만)	2조3,250억(초182만, 중101만)

- \* 전체 학생수 : 초등학교(3,645,786), 중학교(2,026,657), 고등학교(1,834,128)
- \* 방과후 참여 학생수 : 초등학교(1,691,033), 중학교(919,226), 고등학교(1,349,766)
  - 전체 프로그램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비율 : 초(14%), 중(17%), 고 (17%)
- \* 월 학생 1인당 비용 : 초등학교(약 10만원), 중고등학교(약5만원) / 매년 10개월
  - 현재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계층 등) : 자유수강권 지원(약 1,100억원)

○ 초·중학생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현실적 경비절감 방안

- ① 소득수준 상위30% 학생은 수혜대상에서 제외(예산확보에 따라 연도별 점진추진) ⇒ 재정 소요 10~15% 축소 가능(참여희망 비율 50%로 계산할 때)
- ② 학생 성장 단계별 온오프연계학습(온오프브렌디드학습) 시스템 도입

〈표 11〉 학년별 온오프연계학습(온오프브렌디드학습) 시행방안

구분	초등 저학년(1-3)	초등 고학년(4-6)	중학생(1-3)
운영 오프:온라인	방과후학교(오프라인) 면대면 수업 중심 (2 : 1)	방과후학교(오프라인)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콘텐츠 균형활용	방과후학교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중심 (1학년은 일부직접지도)
교사	직접지도 위주 자기주도학습법 지도	직접지도, 학습지원 자기주도학습법 지도	학습지도, 학습관리 자기주도학습법 지도
매체	IPTV, 인터넷망, EBS	IPTV, 인터넷망, EBS	IPTV, 인터넷망, EBS
콘텐츠 제작	EBS, 민간교육업체	EBS, 민간교육업체	EBS, 민간교육업체

⇒ 재정 소요 10~30% 축소 가능. 다만 초기 인프라 투자, 콘텐츠 투자 필요



- ③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투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로 대응투자방식 적용
  - ⇒ 재정 소요 30~40% 축소 가능.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역은 중앙정부 추가 지원 실시 필요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④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추가 모집하여 방과후 영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외부 강사 활용보다 10~20% 비용 절감 가능
- ⑤ 초기 단계에는 학생 중 희망자는 최대 약 50%까지 설정함. 희망자가 추가될 경우,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정 후 선착순(온라인 활용 가능) 접수
  - \* 학생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가능
- ⑥ 중기적으로 방학(1년 중 3개월) 중 희망학생에 대해서 영어무상교육 실시, 학교교사가 기본적인 최소수당(현재 방학 중 시간당 수당의 1/2 또는 무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방학운영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방학은 교사들의 휴가기간이 아니고, 교사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학부모는 방학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는 교사별로 희망 학생들을 있을 경우 일정 기간(방학 중 1/3~1/2)을 할애하여, 최소한의 수당(현재 1/3~1/2) 또는 무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도하거나 학교에 출근하여 자율연수(학습)를 할 필요가 있음
  - \* 단, 일반공무원 휴가일자에 토요일 격주근무일을 더한 일수를 휴가기간으로 보장함. 여기에 집단연수기간과 교직경력에 따른 자가(自家)연수기간을 추가로 보장
- 이들 방안을 적용하면 교과부 추정액의 1/4이나 1/5의 재원으로라도 시행 가능
- 영어 교사의 교육력과 학생의 영어 학습력 신장을 통한 영어교수학습 혁신, 영어회화전문 강사 확대 선발 지원
  - 영어몰입교육은 교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여 교육력 신장
  - 기존 영어회화전문강사 외 영어 방과후학교 영어지도강사를 시간제교사로 고용
    - \*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계획: '09년 5,000명( '12까지, 1만명)
    - \*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및 중등 수준별 영어수업 확대에 따른 영어수업 담당
    - \* 방과후학교 영어지도강사는 오후 방과후부터 수업을 진행하기에 반일제 시간제 교사로 계약 체결 후 수업 진행
  - 교과부 계획에 의해 고용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수업 외 방과후영어수업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고용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 저소득층, 농산어촌 아동에 대한 추가 특별지원대책 추진
  - 영어 학습격차, 영어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을 완전히 극복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원 마련과 투자 확대

- 미래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
- 기존 '영어공교육완성 정책' 재원에 방과후학교 영어 무상공교육(영어전용교사 확대 재원, u-학습체제 소요 재원 등을 포함) 소요 재원을 추가 확보
- 다양한 종류, 다양한 수준, 다양한 방법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수익자부담 영어교육프로그램 추가 운영 허용

## 5. 영어경쟁 강화 아닌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적극 추진

### □ 일반학교 외국어교육, 국제교육 특성화교육과정 개설·운영 확대

- 일반계고교에서부터 외국어(·국제)특성화교육과정 개설하여 운영하되, 점차 중학교와 일부 초등학교도 시범적 운영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일부 특목고, 국제중·고에 집중된 영어교육 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고교, 중학교 입시경쟁과 사교육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외국어(·국제)특성화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영어교육혁신 방안들을 우선 적용하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유효할 것임
- 일반계학교 외에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학교(가칭, 창의형 자율학교)를 확대하여 외국어(·국제)특성화교육과정 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 선지원 후추첨 선발(점수 중심 입시경쟁 완화) : 창의형 자율학교는 학교별 선발이 아니고, 평준화체제(무시험 추첨 전형체제) 내에서 선 지원,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에 고교 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음
  - \* 자사고·특목고, 국제고·국제중, 개방형자율학교 등이 학교별 선발로 입시경쟁과 사교육 수요 증대를 초래하기에 평준화체제 내에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 선발
  - 창의형 자율학교부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교수학습법 확대 : 자기주도학습, 핵심역량학습, 창의·탐구학습, 선택학습, 쌍방향학습, 맞춤형학습 지향

### □ 영어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개선

- 독해력, 듣기, 말하기, 쓰기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영어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개선
- 교원 양성, 임용, 연수 과정에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방침 확대
- 우수한 교사의 수업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전국 모든 교사·학생에게 공개

### □ 영어 교육과정·교과서 개편 추진

-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의 적절한 확대 추진, 다만

우리말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

- 영어수업시수의 적절한 확대 시 우려되는 지역간 학생들의 수준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초등학교부터 우선 시행
- 일반계고교에서부터 외국어(·국제)특성화교육과정 개설 방침은 가능한 신속하게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도입 추진하도록 유도·촉진<sup>4)</sup>
- 말하기, 쓰기 교육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교과서의 디지털화가 필요함. 영어교과서의 디지털화 전단계에서는 영어 말하기, 쓰기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과 학생에게 전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

**□ 영어 수준별교육 확대 : 방과후학교부터 먼저 추진하여 확대**

- 영어 수준별 수업 교재, 방법, 평가 방법 연구·개발하여 보급
- 수준별수업의 지나친 확대 및 학생 강제 배정은 학생간 위화감 형성, 평가의 곤란, 영어 학업성취 격차 확대, 교사간 미묘한 갈등 등 몇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에 대책 마련하며 점진적 추진 필요
- 하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에서는 영어 수준별 수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함
- 수준별 수업에는 온오프연계학습 시스템 활용이 효과적임

**□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

- 영어교사 양성, 임용, 연수 방식 개선
  - 중등 영어교사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 시에도 영어수업능력 비중 확대 : 각각v학생발달 수준에 맞는 영어교육능력 확인
  - 교대·사대 영어교육 양·질 개선
  - 영어교사의 연수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 1차적으로는 영어교사, 2차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능력평가시험 의무 응시와 일정 등급 획득 의무화(초등학교 교사는 등급 차별화 필요)
-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성적, 학습지도에 대한 학생만족도 기준 초과달성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연수기준 미달 교사 재연수·휴직 기회 부여, 미개선 시 행정교사로 배치 검토
- 원어민영어교사 모집·관리체계 개선, 교수법 등 연수 강화
- 영어교육요원은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 수업 및 관리 전담교사로 배치(정규교사 도입 반대)

4) 고등학교에 예체능과 외국어교육 분야 특성화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은 교과별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개편이 필요 없는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안이기에 정부에서 추진만 하면 2008년 개정해서 2009년부터도 시행이 가능함

□ 영어 교사의 교육력과 학생의 영어 학습력 신장 병행 추진

- 영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영어 온오프연블렌디드 학습법 도입 적극 추진 (영어교사 연수에서의 몰입교육에 도입)
- 학생의 영어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 도입

6. EBS-English 중심 사교육 대체재 확충,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 영어학습 전용방송(EBSe) 내실 있는 운영, 재정 지원 확대

- EBS에 운영을 일임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영어학습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
- 영어학습 전용방송(EBSe) 외 영어전용 FM 방송 실시 및 소요 재원 확보
- 영어학습 전용방송(EBSe)의 공익방송 지정

□ 영어학습포털(<http://www.ebse.co.kr/>) 내실 있는 운영, 재정 지원 확대

- EBS-English에 영어 교육프로그램 적극적 확대, 무상제공
  - 초등만이 아니라 중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좀더 질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공, 영어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 EBS에 유치원과 초등학생·중학생이 활용하는 교육사이트 별도 구축 하여 운영
  - \* 현재 EBS의 초·중학생 대상 콘텐츠 매우 빈약, 이용률 저조
- IP-TV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영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온오프연계학습(브렌디드러닝) 추진
- 영어교육콘텐츠 제공을 넘어서 영어능력평가, 진단, 처방, 학습관리시스템을 함께 제공
- 영어학습지원센터 개설·운영, 전화영어, 화상영어 서비스, 온오프연계학습용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제작, 제공
- DMB, MP3용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 확대
- 영어학습 전용방송(EBSe), 영어학습포털, 영어학습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고급서비스 적극 추진(정부 지원 확대 시 화상통화, 학습관리시스템 등 고급서비스의 무상제공 가능)
  - \* 정부가 시급히 지원을 확대하여 고급서비스까지 무상화 필요

□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 확대

-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거주 지역 위주 영어체험학습센터 확대
-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활용 가능성,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 운영

□ 외교국제고·외국어대 등 우수영어교사 현장강의 온라인 제공

- 외국어고, 외국어특성화학교의 우수교사 현장강의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모든 교사·학생에게 제공
- 국제고, 외국어대 등의 영어교육 학교와 협약을 맺어 대부분의 교육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제공 추진
  - 온라인으로 영어교과 외 일부 교과외 영어 수업 서비스 제공은 충분히 가능

□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u-학습체제 구축 및 무상 지원

-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u-학습체제 구축
- 대학생·성인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 무상제공
  - 토익, 토플, 텡스 등 기존 영어능력시험 대비 강좌 제공
  - 신설되는 국가영어능력시험 대비 프로그램 무상 제공
  - 영어 학습진단·학습관리 프로그램 도입, 서비스 제공
  - 일반인을 위한 영어회화대비 프로그램 무상 제공
- 한국방송통신대 영어교육 콘텐츠 방송대와 EBS 사이트 등을 통해 무상 보급

7.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온오프연계학습 지원 방안

□ 현황 및 필요성

- EBS인터넷방송이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유용하였고, 자기주도학습능력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주로 저소득층)의 활용은 미흡
- 방과후학교 운영이 일부 확대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강사의 질, 프로그램 및 학생 관리 미흡, 교사 수업·관리 부담 증가로 인한 협조 부족 등 여러 한계 발생
- 자기주도학습능력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며, 교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학습 지도 방안 필요
  - ※ 자기주도적인 학습 :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내용을 정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맞추어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하여 자신의 학습을 수정·보완하는 학습과정’ , 즉 자기계획(self-plan), 자기선택(self-selection), 자기탐구(self-inquiry), 자기교수(self-teaching), 자기조력(self-assistance), 자기평가(self-evaluation)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

□ 추진 방안 : 방과후 온오프연계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수준별 영어수업, 말하기·쓰기 영어 수업 대폭 확대

○ 온오프연계학습방안은 반드시 자기주도학습력 배양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

○ 방과후학교에 온라인학습을 활용한 온오프연계학습 프로그램 개설

- 대상 : 심화 또는 보충 학습이 필요한 모든 학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아직 부족하여 학교에서 학습지도·관리가 필요한 학생
- 운영 : 튜터(강사, 영어는 영어교육요원)가 방과후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 보충질의 응답, 평가·상담

진행 절차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준비	지원센터·학교	교육콘텐츠, 학습진단·계획·관리 프로그램 제공 학습법, 학습설계 강좌	온오프연계학습 튜터 양성 방과후학교 수업 개설 학습법·연계학습지도법 설명회	
	튜터	콘텐츠·프로그램 선정	수업 준비	
수업	학생	학습진단, 학습계획 작성	방과후수업	학습계획·내용 발표·공유
		온라인콘텐츠 학습		학생토론, 보충질의·학습
	튜터	주기적평가·진단결과 종합		학생 계획·결과 검토·수정
		온라인 학습관리 학부모 온라인 상담		토론·보충학습지도, 학생학습상담(클리닉)
평가·피드백	학생	추가보충학습, 형성평가	튜터 확인 및 지도	
	튜터	평가결과 종합, 학습코치	차시 수업 반영, 학습코치	

○ 방과후학교와 온라인학습지원체제를 연계한 온·오프연계학습에 적합한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선·확충

- EBSi, EBS에 학습진단, 학습코치(학습법지도),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확충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방과후학교 온오프연계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제공
- 단위학교 선택에 따라 민간업체 우수 교육용콘텐츠, 프로그램 사용 가능
- 원어민교사 영어교육콘텐츠(듣기·말하기·쓰기 콘텐츠 포함)

○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콘텐츠 개발확충, 보급

- 동영상콘텐츠, 프로그램, 시스템 제작 비용 지원
- 동영상콘텐츠를 PC와 IPTV로 동시에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
- DMB, MP3용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 확대

○ 온·오프연계학습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튜터를 양성하고 학습 관리·지도를 철저하게 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

[참고] 영어교육격차 해소 방안

- 농산어촌,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온오프연계학습 확대 및 무상교육 추진
  - 농산어촌, 저소득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무상 제공.
  - 방과후학교와 온라인학습지원체제를 연계한 온·오프연계학습 프로그램까지 무상 제공 추진
  - 농산어촌 초중고교 우수영어교사, 우수 영어전용교사 배치
- 농산어촌 거점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우선 개설·운영
  - 농산어촌 초중고교 영어교육시설 개선
  - 농산어촌 거점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우선 개설·운영
  - 농산어촌 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교육요원 농산어촌 우선 배치
- 저소득층 학생, 영어 학습부진학생에 온라인 학습관리 서비스
  - 영어교육콘텐츠 제공을 넘어서 영어능력평가, 진단, 처방, 도 영어 학습관리프로그램 제공, 학습관리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
  - 방과후학교 영어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제교사가 담당하고, 학습관리 수당 제공, 학업성취 확인 후 인센티브 제공

IV. 제언 : 정부 교육정책결정과정 개선과 외고체제 개편, 영어무상공교육 적극 추진

-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 추진과정 에서 사교육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 검토 미흡, 학교와 대학의 대응능력 검토 미흡
- 영어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좀 더 폭 넓고 다양한 대안 검토, 정확한 결과 예측, 대안에 대한 학문적·민주적 토론·합의, 추진 노력 필요
- 동시에 학교와 학생·학부모, 사교육업계의 현실적인 대응 능력을 고려하고 그 결과 나타날 양상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정책 추진 필요
- 영어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의 예술 발휘 필요
- 특히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 체제 개편은 단지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특성화교육을 위한 고교교육체제를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필요
- 방과후학교 영어무상교육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영어격차 해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하여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재원절감 방안과 재원확충 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찾아주기 바람

[별첨 자료]

〈표〉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구분	공교육기관(학교)	사교육기관(학원)
	교육과 평가 중심	교육과 학습 중심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졸업장 획득(사회공인 학력 획득)</li> <li>• 교우관계, 학력 신장, 전인적 성장</li> <li>• 좋은 내신성적 받기(내신 9등급 상대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경쟁에 유리한 실력 향상(대입경쟁전략)</li> <li>• 내신수능점수, 논술면접능력 향상 (최근 입학사정관전형)</li> <li>• 학생시간관리, 학생학습관리, 진로진학상담</li> </ul>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과정 경직성</b>: 종합반 방식 운영 체제, 상대적으로 획일적 교육과정, 경직성, 예체능교육수요, 수준별교육수요 충족 미흡. 진로교육, 진학상담 거의 없음(학생·학부모 몫)</li> <li>• 일부 방과후학교 단과식 운영체제, 비교적 유연 * 극히 일부 학교는 아직도 일제식 보충수업 운영</li> <li>• <b>학교와 교사(교육자, 공급자) 중심 운영</b>: 교육 중심, 교육과정 개설, 수준별 이동수업, 학생 평가</li> <li>• <b>제한적인 수준별 이동수업</b>: 제한적 적용, 수시 반 편성 이동 어려움. 너무 철저하게 적용하면 학생 경쟁 심화,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가능, 평가 어려움</li> <li>• <b>학교·교사 선택권 없음</b>. 과목 선택권도 제한적</li> <li>• <b>교사 간 경쟁 미흡,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미흡</b>(변화에 대한 적응과 생존은 거의 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다양한 운영체제</b>: 종합반과 단과반, 특별반, 비공식 그룹반 또는 개인지도, 다양한 전문학원 등 다양, 진로컨설팅, 진학컨설팅, 학습관리 등</li> <li>• <b>철저한 학습자수요자 중심 운영체제</b>: 원하는 학원에서,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강사에게, 원하는 시간에 학습 가능. 학습자 능력, 적성, 희망, 진로를 고려한 학습. 교육과 학습</li> <li>• <b>철저한 수준별 반 편성</b>: 진단평가, 수준별 교수학습, 개별학습, 정기테스트 거쳐 수시 반 변경</li> <li>• <b>학원강사선택권</b>(오프라인은 지역단위, 온라인은 전국단위 선택)</li> <li>• <b>강사간 경쟁, 체제 유연성(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생존을 좌우)</b>, 강사 유연성과 교육과정 유연성 연계</li> </ul>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 학습관리 미흡</b>: 교육과 평가(상대평가) 위주, 학생 학습동기 부여, 학습관리 소홀</li> <li>• <b>학부모 협력관리 미흡</b>: 아직 일부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를 간섭자로 인식. '선 지원 후 추첨' 체제에서는 학부모 협력관리, 홍보, 만족도 증시 필요</li> <li>• <b>교사 교육력 관리 미흡</b>: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안정적인 교사관리, 교사간 경쟁 미흡, 학생학부모 만족도보다 관리자 만족도와 평가가 중시되는 승진체제. 형식적인 성과급, 외부강사에 대한 경계반발 심리 존재</li> <li>• <b>경영·관리 책임 미흡, 상담 미흡</b>: 상담 중요성 인식과 담당자 배치 미흡, 진로와 진학 상담 부족(개선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 학습관리시스템</b>: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학생 학습관리(철저한 진단평가, 수분별 반배치, 수강 및 과제관리, 학력과 만족도 관리)</li> <li>• <b>학부모 관리협력 방안</b>: 등록시 상담, 수시 담임전화 상담, 원장 등 특강. 성공한 학원은 반드시 학부모를 장악하고 있음.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li> <li>• <b>강사 교육력 관리</b>: 스타강사 스타마케팅, 내신은 철저하게 프로그램과 강의력, 학생·학부모 관리능력 중심, <b>강사간 경쟁 강화, 평가 강화, 철저한 능력별 보수체계</b>(이익 배분), 철저한 인센티브해고, <b>기준은 수요자 만족도</b></li> <li>• <b>경영과 관리 책임, 상담 분리</b>: 경영만이 아니라 상담, 관리자가 성공 핵심요소</li> </ul>
시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직은 공급자(교육자) 중심 시장</b></li> <li>• <b>평준화체제</b>: 교육청에서 학생 배정, 지역격차 적음(지금까지 어떻게 교육해도 학생은 자동적으로 확보)</li> <li>• <b>경직된 고용, 주인 의식 부재, 학교발전(학생학업성취)과 교사이익(교사만족) 간의 상관관계 미흡</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요자 중심 시장</b>: 수요자,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생성, 유지되는 시장</li> <li>• <b>오프라인 지역 과점시장, 지역간 격차 매우 큼</b></li> <li>• <b>온라인 형식 완전경쟁, 실질 독과점시장</b></li> <li>• <b>유연한 고용</b>(수능: 강사중심, 내신: 관리자 중심)</li> </ul>



<p>강좌 교수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수방법 혁신 미흡</b> : 개선을 위한 노력 중이나 개선 효과가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님</li> <li>*공교육개혁노력은 사교육 증가 효과에 비해 더 많은 경과시간이 필요, 지역학교·교사별 격차 발생</li> <li>*내신 9등급 상대평가는 교수법 개선보다 상대평가에 좀 더 치중하는 결과 유발(수행평가 왜곡 등)</li> <li>• <b>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부족</b> : 학생·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인 학습동기유발, 학습관리, 진로 및 진학 컨설팅에 관한 공교육 해법 미흡</li> <li>• 시간표 운영, 수업 및 평가 형태의 경직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습자 수요에 맞춘 교수방법 적용</b>: 지식 습득 중심 내신대비, 원리·이론 이해와 적용을 비롯한 사고력 중심 수능대비, 토론·첨삭 중심의 논술·면접, (단순 암기와 고급 사고력 신장 등 다양)</li> <li>• <b>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b>: 학습력 부족 아동에 대한 학습관리, 진로 혼란 및 대학 진학정보 부족 학부모를 위한 진로 및 진학 컨설팅</li> <li>• 다양한 시간 운영: 주중·주말, 주야, 50/90/120분</li> <li>• <b>다양한 수업·평가 형태(유연성)</b> : 대입전형요소에 적합하게 교수평가 실시, 내신수능 점수 향상</li> </ul>
<p>강사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확실한 신분보장과 동기 미흡</b>: 교사는 입직준비기간 외에는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려는 동기 부여 미흡</li> <li>• <b>교사의 노력·투자과 보상의 연계 미흡</b>, 교사의 계층화 미흡, 교사 간 끊임없는 모방과 교수학습 미흡</li> <li>• 교사에 대한 정해진 수요, 고객수요 변동 요인 미흡</li> <li>• 사교육기관에 비해 <b>새로운 입학전형에 대한 학교·교사 대응력 부족</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장 유연한 노동시장</b>(상시적인 학생·학부모 평가와 도태), <b>사교육기관 간 서비스 경쟁</b>(개원, 경쟁, 성장, 쇠퇴, 소멸)</li> <li>• <b>강사의 노력·투자과 보상의 직결</b>, 강사의 계층화, 강사 간 끊임없는 모방과 창조</li> <li>• 오프라인은 지역단위, 온라인은 전국단위 학습자 수요 존재, <b>사교육기관과 강사의 탄력적인 시장 대응</b></li> </ul>
<p>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도서로 사용제한, 맞춤형교재 제작·사용 어려움, 교사의 맞춤형 교재 제작 지원 부족</li> <li>• 방과후학교 다양한 교재사용 가능(정규시간보다 유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수준에 맞는 교재, 고품질 교재</li> <li>• 수능시장: 교재 저자직강, 내신 프랜차이즈학원 교재 사용 (교재 간 질 차이 큼, 주요 경쟁 요소)</li> </ul>
<p>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행정서비스 지원 미흡, <b>방과후학교 프로그램관리, 방법, 청소 등에 대한 관리와 책임 모호, 상담지원 없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관리, 보조 서비스, 관리 책임 분명</li> <li>• 상담 및 컨설팅 기능 특화, 교과강사도 상담 중시</li> </ul>
<p>핵심 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교와 교사에 따른 교육력 차이</b></li> <li>• <b>맞춤형 학습관리 부족</b></li> <li>• <b>학부모관리 부족 ⇒ 아직 학습자 중심 마인드 미형성</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습자 수요에 맞춘 학원과 강사의 교육력</b></li> <li>• <b>효과적인 맞춤형 학습관리능력(수준별, 개별 학습)</b></li> <li>• <b>학부모관리시스템 ⇒ 고객(학습자) 중심 마인드</b></li> </ul>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서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과  
인터넷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http://www.ebse.co.kr))을 활용



함 정 현

(한서대 교양학부 교수)



#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서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과 인터넷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을 활용

함 정 현  
(한서대 교양학부 교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는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로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Crystal, 2003; McKay, 1992, 2002).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도 유창성과 정확성의 균형적 발달을 통한 실질적인 영어 사용능력이 필수요건이 되며 강조되어 지고 있다.

공교육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며, 의사소통 중심 음성 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중등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이러한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으로서의 영어 교육의 강화와 함께 영어 교육을 위한 사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약 77%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국내 영어 관련 사교육비가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사교육 증가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예산 대비 국내 영어 관련 사교육비의 비중은 약 47%에 달한다. 또한 영어 학습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생의 조기 유학생 수가 약 3만명에 달하며 그 비용만 44.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앙일보 2007. 9. 26).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예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영 환경 정보 제공 업체인 정치경제위험컨설팅(PERC: 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에 의하면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들은 영어 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7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전효찬, 2006).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2004~2005년에 응시한 토플 평균 점수는 300점 만점에 215점으로 전 세계 147개국 중 93위에 그치고 있고,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권 나라의 연구 개발 환경 비교에서도 영어 구사 능력 부분은 한국이 2.67점의 최하위의 점수를 받은 바 있다(한국영어교육학회, 2007).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영어 교육의 양극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영어능력을 중요시하고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이미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윤지관, 2007). 국내 영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1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영어 사교육비는 2007년 대비 11.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세기, 2009. 2. 27). 영어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영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과 영어 실력의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영어 실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른바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민규 · 장영준, 2007). 서울 지역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읍, 면 지역의 약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약 8.8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있어서도 수준차를 보이는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8년 국가 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보면 다른 과목보다도 영어 실력의 수준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저효율, 영어 교육의 양극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이 프로젝트는 교원 확충, 교육 과정, 교육 환경등 공교육의 3대 축을 전면 개편하여 사교육 시장으로 쏠린 영어 수요를 공교육으로 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영어를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원 양성, 초등 영어 수업 시간 확대와 중고교 말하기, 쓰기 기능 강화 등의 영어 교육과정 개편, EBS 교육 방송 등을 활용한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 환경 측면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으로 수업 시간에 학습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거나 보충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Brown, 2007). 그 예로서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교육 방송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이병문, 2006). 특히 북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으며, 영어 학습 시수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부분 국민이 영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방송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van Ek & Trim, 1998a, 1998b, 200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영어 교육의 양극화 문제, 영어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 방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EBS English'를 개국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계층간 영어 교육의 학습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희균, 2007, 3, 28).<sup>1)</sup>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EBS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EBS English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EBS English 프로그램과 인터넷 영어교육방송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EBS English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EBS English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활용, 만족도, 요구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EBS English는 위성방송인 SkyLife(채널 704번)와 인터넷(www.ebse.co.kr)을 통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08).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방송

#### 1.1 교육방송의 정의

이용환(2001)은 교육방송(educational broadcasting)이란 교육이라고 하는 고도의 메카니즘이 한데 어울려 운영되는 복합적인 교육현장으로 교육의 전문가와 방송의 전문인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원격 교육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근해(2001)는 교육방송이란 비영리적, 비상업적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일반 대중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진해(2004)는 교육방송이란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하는 역동적 체제라고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학습동기를 역동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원격체제가 바로 교육방송임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해볼 때 교육방송이란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작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 1.2 교육방송의 기능

교육방송의 기능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방송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용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향상시킨다. 즉 방송매체의 대량성, 신속성, 광범위성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학교 교육이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한다. 현재 대도시의 과밀화가 좀처럼 해소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이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교육 기회의 균형적인 공급을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기능이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기타 사정으로 계속하고 싶은 공부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1.3 교육방송 활용 시 고려사항

교육방송은 언어를 비롯한 각종 영상적 부호를 사용하여 정보 및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지적, 정의적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따라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 학습론 및 교육 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 활용되는 교육방송을 학생들의 능력에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습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인미(2003)는 수업에서 교육방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교사와 학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과 조직의 적합성과 분류를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교과 과정 지침의 효용성 강화를 통한 현장에서의 질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방송 프로그램의 속보성, 누적성, 광범위성, 계획성, 간편성 및 영상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주도형의 방송활용수업에서 학습자의 자주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주도형 방송활용수업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송을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교육방송이 수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방송의 접근 방법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방송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학생이 영어에 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교육방송을 통해 보완해나가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알아가는 방향을 학습을 진행해 나간다면 현행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1.4 교육방송 활용 과정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교수 학습 활동에 투입 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방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인미(2003)는 획일적인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투입을 경고하면서 활용상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활용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 1.4.1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분석의 효율성과 객관성 그리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분석하는 것 보다는 교육방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동학년 교사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교과별 영역별로 다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투입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4.2 투입시기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 그것을 학습 활동의 초기 단계인 도입부에 투입 할 것인가, 본시 학습의 전 단계인 중반부에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의 정리 단계인 종반부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4.3 투입 방법

프로그램에는 전량 투입과 분절 투입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프로그램을 단위 시간에 그대로

투입하는 것이고 후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방송을 주로 분절 투입하나 학생이 심화 보충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략투입을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 1.4.4 피드백

방송매체 활용의 결과에 대한 반성과 효과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대로 실제 수업에 활용되었는지 평가하고 교육방송 활용상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한다.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보충 과제를 실시하고 다음 차시를 위한 발전 문제를 제시한다.

### 1.5 교육방송의 역할

교육방송 매체가 영어 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Tomalin(1986)에 의하면 방송매체는 의미의 시각적 단서와 청각적 단서를 제공하고 교실 밖 세계를 교실 안으로 가져오며 목표언어의 문화적 단서를 제공하고 목표언어의 문화를 교실에 소개한다. 또한 방송매체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며 언어 학습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 자신에 담을 수 있는 한정된 양만을 가르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개별성에 유리하며 (Richard, 1971) 다양성을 포함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가능하여(Dale, 1969) 일상적인 교실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교과서와 교사용 CD-ROM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한정된 양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나 동기를 강력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진해(2001)는 방송프로그램을 영어에 활용할 경우 교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발음의 식별 및 인식, 억양 및 강세, 리듬, 다양한 언어 표현(Language varieties), 문장 구조의 인식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적인 교실수업에서 부족하기 쉬운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EBS 영어 교육 방송의 초등 영어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소재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의 필요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방송매체는 지역 간의 격차나 교사의 개인차 등을 극복하고 동일 내용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영어 교육에 방송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이완기(1985)에 근거하여 다음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재를 훨씬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실 묘사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원어민의 발음, 발음 모습, 극화된 언어 행동,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들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학습(meaningful learning)을

하게 하여,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언어 행동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으며 언어와 언어사용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셋째, 학습자에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문들을 맹목적으로 제시하는 적이 아니라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을 그대로 관찰하게 함으로써 언어 행동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들을 말의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은 박인미(2003)의 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을 묘사한 교육방송 드라마를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영어 원어민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은 EFL 상황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줄 수 있고 말할 때의 입모양이나 표정 등을 보여줄 수 있어서 학습자가 영어를 보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의 적절한 의미(appropriate meaning)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종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CD-ROM도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VOD 서비스를 갖춘 인터넷 교육방송(EBS)의 콘텐츠는 분명 경쟁력이 있다.

### 1.6 교육방송 활용의 교육적 시사점

교육방송은 시 공간적으로 집약된 광범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시간 절약과 다른 수업매체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방송 활용의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활용 방법에 따라 창의적인 표현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교육개발원의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잠재 능력 신장에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므로 교육 실천 상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보완하고 재편성되어야 하겠다.

셋째, 교육방송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는 교사의 뚜렷한 활용 목적과 면밀한 계획인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방송 자료의 단위 시간 투입을 위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 시청, 분석, 재구성, 자료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방송 프로그램 자료의 활용을 위한 학생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는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준다.

## 2. 인터넷 교육방송

인터넷 교육방송의 정의(Internet educational broadcasting)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혹은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동영상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적 웹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대전초등교육방송연구회, 2004).

인터넷 교육방송의 방식은 VOD(video on demand) 즉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는데, 교육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교수-학습 자료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VOD는 인터넷 교육방송의 저변확대를 돕는 중요한 교육방송의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 초·중등학교에서 인터넷 교육방송 VOD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를 연구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학교에서 수업하기 편리한 VOD의 활용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교육방송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첫째, IT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학습이 가능하여 학습공간이 확대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많은 강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공간이 확대’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둘째, 학습자 개개인마다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은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이나 배우는 순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므로(김현진, 2006),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결국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다(안성훈, 2008).

셋째, 학습자의 고립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을 통하여 이메일 전자게시판 프로그래밍 언어 비디오 회의 등 인터넷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습자들끼리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어 함께 배운다는 의식이 네트워크상에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그동안 느꼈던 사회의 고립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김현진, 2006).

즉, 위와 같은 특성으로 교육전문가들은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며, 교육 접근성과 자율적인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윤여순, 2000). 아울러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을 통해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비 감소와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장려하고자 많이 도입되었다(김주혜·김영우, 2005). 그러나 웹상에서 학생들의 개별 자료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이 가능하다(이인숙, 2002)는 이유로 실제 교

육현장에서는 정부나 학교 행정가의 정책에 따라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 체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상황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현장에 투입되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혜은, 2007). 이에 전통적인 교실 영어수업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했던 것처럼, 인터넷 전자학습(e-learning) 환경에서도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려해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밖에도 개인용 컴퓨터(PC), 휴대폰, PMP 등과 같은 개인용 통신매체의 발달은 교육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교육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 3.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영어 교육 전문 채널로서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채널 및 무료 영어 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가 2007년 4월 6일 개국했다. 이는 급증하는 영어 관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며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인적 자원부가 2006년 11월에 발표한 영어 교육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핀란드 등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EBS 영어교육방송 및 인터넷 사이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일반 성인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영어 능력을 올리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BS English의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콘텐츠는 동 사이트에 탑재해 학습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EBS English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9년 공익채널에서 제외되어 각 지역 케이블에서는 EBS English를 의무적으로 방송하지 않아도 됐다. EBS English 방송은 기존 EBS 채널에서는 시청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녔으나 www.ebse.co.kr에 접속하여 무료 이용할 수 있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08).

EBS English에서는 연령별, 수준별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BS 초등영어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소재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의 필요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방송매체는 지역간의 격차나 교사의 개인차 등을 극복하고, 동일 내용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방영시간이 정해져 있던 기존의 단점도 VOD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최수영·김병훈, 2007). 현재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유아부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을 각 수준에 맞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수영·김병훈, 2007).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작되는 EBS English 프로그램은 실용성,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일상적인 영어 노출 환경 구축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2월에 EBS English 채널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채널 이용자 타겟의 재설정 및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방송프로그램을 멀티캐스팅 기술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인터넷망이라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와 웹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 대상이 유아와 어린이에서 초중학생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유아와 어린이의 편성 비율은 49%에서 개편 이후 26%로 축소되었으며, 성인일반과 주부, 교사는 36%에서 30%로 조정되었다. 반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15%에서 44%로 확대되었다. 이는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 EBS English가 공익채널에서 제외된 이후 일부 케이블TV에서는 EBS english를 시청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EBS English는 개편을 통해 IPTV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IPTV의 경우 LG에서 제공하는 myLG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다. 웹서비스는 VOD와 함께 인터넷 전용 콘텐츠를 연간 4,70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VOD 콘텐츠는 지상파, 위성방송, 일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방송 콘텐츠를 EBS English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인터넷 전용 콘텐츠에는 수준별 영자신문, 원서오디오북, 영어 동화 애니메이션, 초등교과 액티비티, 영어표현 플래시 애니메이션, 영어듣기모듈, 문법모듈, 영어동요, 단어카드, 교과서단어장, 워드스토리 등이 서비스 중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 전용 콘텐츠는 EBS english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eStudy' 라는 탭을 이용하여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 Ⅲ.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English 프로그램

#### 1. EBS English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EBS English 프로그램은 자율영어학습 프로그램과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와 연계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SEL(School English Level)', 그리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수준별·영역별 학습을 제공하는 '방과 후 영어' 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콘텐츠는 영어 교육의 7개 영역(통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에 걸쳐 Basic에서 Level 6(Basic: 유아~초3, Level1: 초3~초5, Level2: 초5~중1, Level3: 초6~중2, Level4: 중2~고1, Level5: 고1~고3, Level6: 성인)까지 총 7단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 1.1 자율영어학습 프로그램

자율영어학습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성인(일반/학부모/교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 1.1.1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영어학습 프로그램

율동, 리듬, 글자와 소리의 관계 등에 대해서 노래, 애니메이션, 인형극, 게임 등 다양한 학습 기법을 통해 영어와 친해지는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기초를 확고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내용

프로그램명	영역	수준	내용
미라벨의 동물극장	듣기	Basic Level1	애니메이션을 통한 기초 영어 학습
요 갱바 갱바 (Yo Gabba Gabba)	듣기	Basic Level1	애니메이션을 통한 기초 영어 학습
똑! 똑! 영어놀이터	통합	Basic	언어와 함께 내용에 기반한 영어 교육, 웹을 통한 반복 학습
Telling Tale	듣기	Basic Level1	전래동화, 명작동화를 그림책으로 각색하여 스토리 텔링 기법으로 교육
Sunny Town ABC I, II	통합	Basic	chant, 율동, 노래,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활용해 알파벳 문자, 소리 학습
Sunny Town Theater	듣기	Basic	Sunny Town ABC 복습
Bedtime Story	듣기	Basic	집중력이 높은 취침 직전 시간을 활용한 영어 동화 듣기와 읽기

프로그램명	영역	수준	내용
Aesop's Fables	듣기	Level1	이솝이야기를 통한 듣기 능력 향상
Key Key Writing	쓰기	Level2 Level3	일기, 편지, 기행문, 독서감상문 등 문형연습을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디지털영어교재 level1, 2, 3*	통합	Level1 Level2	디지털교재를 통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학습
세계 대탐험 구리 구리 땡땡	듣기	Level2	세계 각국의 풍물을 영어로 더빙하여 전달
동물 대탐험 구리 구리 땡땡	듣기	Level2	동물에 관련된 신기하고 알찬 정보를 영어로 더빙하여 전달
초등3, 4 교과서 영어	통합	Level1	초등3, 4 영어교과서의 다양한 장소, 개념, 사실에 대한 영상자료 제공
초등5, 6 교과서 영어	통합	Level2	초등5, 6 영어교과서의 다양한 장소, 개념, 사실에 대한 보조영상자료 제공
The Little Thinker's Story	듣기	Level2	과학과 사회 분야의 영어 동화를 통해 학습
Math in English	듣기	Level2	수학의 내용을 활용한 영어 학습
Magic World	어휘	Level1	재미있는 마술을 통한 영어 학습
Magic English	통합	Level1	쉽고 재미있는 마술을 통한 실생활 영어 학습
Wolly Bully Magic English	통합	Level2	마술쇼를 통한 영어 학습
This and That English	통합	Level2	디지털 영어 교재,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학습
Milk Time-moomoo I, II	통합	Level1	우유 먹는 시간을 활용한 영어 학습
Welcome to my School	통합	Level1	전국 초등학교 탐방, 학교의 모습과 새로운 정보
I Love Reading	읽기	Level2	자기 주도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Boom Boom Musicland	통합	Level1	영어 문법송을 통해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
La La La Happy School	통합	Level2	초등학교 특기 적성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
Word Champ	어휘	Level2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영어 단어 퀴즈쇼
Enjoy Reading	읽기	Level2	영어책 읽기를 통한 주요 어휘와 표현 학습
Story Land I, II	듣기	Basic, Level1	한국 전래 동화와 세계 명작 동화 및 우화를 영어로 읽기
초등3, 4 교과서 영어*	통합	Level1	초등3, 4 영어 교과과정에 기초한 실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5, 6 교과서 영어*	통합	Level2	초등5, 6 영어 교과과정에 기초한 실력 향상 프로그램

\* 온라인 전용 콘텐츠

### 1.1.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영어학습 프로그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를 영어를 통해 학습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영어 학습과 함께 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문계뿐만 아니라 실업계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전문 영역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내용

프로그램명	영역	수준	주요 내용
특목고 대비 강좌	문법 어휘 듣기 읽기	Level4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시험 대비 강좌. 각 영역별 기출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로 구성
영어 원서 읽기	읽기	Level4 Level5	매달 한권의 원서를 선정하여 완독을 목표로 강사와 함께 읽기를 학습. 동영상, 문제풀이 등으로 구성
전국영어듣기능력평가 (중1, 2, 3)*	듣기	Level3 Level4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공동 주관 중학교 영어듣기평가 시험 대비를 위한 기출문제 풀이 및 실전 대비 과정
중학영어듣기평가대비강좌 (중1, 2, 3)*	듣기	Level3 Level4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공동 주관 중학교 영어듣기평가 시험 대비를 위한 실전 대비 과정
션킴 & 쉐인의 Easy English	말하기	Level5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구성된 실용 영어 회화 강좌
Enjoy Stories-level1, 2, 3	읽기	Level3 Level4 Level5	독서를 바탕으로 한 영어 표현 학습. 레벨에 따른 영어 사용 빈도와 속도 적용
어떻게 만들까?(영문판)	듣기	Level4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들의 제조과정을 영상으로 학습
Rainbow English	말하기	Level4	교과서의 영어 구문을 7단계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용례를 학습
중1영어(1학기/2학기)	통합	Level3	교과서에 기초한 영어 강좌
중2영어(1학기/2학기)	통합	Level3	
중3영어(1학기/2학기)	통합	Level4	
노다지 English	통합	Level4 Level5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학습 중학 영어의 궁금증을 일대일 과외하듯 해결
Junior Quiz Champ	말하기	Level4	중학생을 위한 영어 퀴즈 프로그램
Korean Culture I, II	듣기	Level5	한국과 외국 문화의 차이 영어권 문화를 배우고 주요 어휘와 표현 연습
Korean History I, II	듣기	Level5	다양한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영어 한국사 이야기
Easy Job English I, II	듣기	Level5	다양한 직업 세계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실용 영어 회화 학습
Debate Survival I, II	말하기	Level5	고등학생 영어 토론 프로그램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토론 실력까지 향상

\* 온라인 전용 콘텐츠

### 1.1.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영어학습 프로그램

자녀들의 영어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교사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EBS English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영어 학습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시사토론, 다큐멘터리, 뉴스 등 영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내용

프로그램명	영역	수준	주요 내용
EBSe 영어회화	듣기 말하기	Level 1~4	미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
영어가 쉬워지는 구동사130	어휘	Level4 Level5	영어 회화의 토대 구동사를 학습
스타 잉글리시	듣기	Level5	영어권 스타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영어 학습
<영어고수의 공부비법 특강> 나의 영어성공기	통합	Level6	영어의 고수로부터 직접 영어 공부법 전수
English 119	통합	Level5	영어공부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 해결책을 제시
Inside the Actors Studio	통합	Level6	토크쇼를 시청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을 통해 다양한 영어 표현 습득
Super Why Guide	통합	Level6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Super WHY의 중요 영어표현 학습
Sports in English	듣기	Level5	스포츠를 영어로 배우고 따라해 보기
Korea Heritage	듣기	Level6	한국의 유형, 무형 문화재 영어로 소개
Korean Culture I, II	듣기	Level5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짝막한 생활 영어 표현을 익히면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
Korean History I, II	듣기	Level5	다양한 자료와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하여 역사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한국사
Easy Job English I, II	듣기	Level5	실업계 고교생을 위한 전문 영어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자동차공학, 디지털 정보처리 등 실업계 주요 과목의 전문 용어 설명
EBS Special	듣기	Level6	EBS 우수 다큐멘터리를 영어 버전으로 소개
The World Today I, II, 한글	듣기	Level6	글로벌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문화, 경제 전문가 를 통한 비즈니스 영어 학습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주재 대사 및 CEO 등을 초청하여 문화, 경제 등에 대해 들어보는 다문화 프로그램 한글 번역 자막 제공
Road Diary	말하기	Level6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과의 Road Documentary를 통해 재미와 학습, 교훈을 얻음
Brain Pops	통합	Level4 Level5	팝송을 통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명	영역	수준	주요 내용
섬마을 아이들, 영어를 만나다	통합	Level6	용도 분교 아이들의 영어 초보 탈출기
Talk'N Issue-영어강국 코리아	통합	Level6	화제의 현장 주인공을 만나는 Live 영어 정보 토크
Mom's Time I, II	통합	Level6	다양한 코너와 알찬 정보를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영어 교육의 비법 공개
Teacher's Time	통합	Basic	현직 교사들이 학교 수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수업 비법 습득
Teacher's Guide 1 - Elementary School	통합	Level2	EBS English 방송을 활용하여 초등 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공
Teacher's Guide 2 - Middle School	통합	Level3	EBS English 방송을 활용하여 중등 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공
Teacher's Guide 3 - Native Teacher	통합	Level4	원어민 교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범 수업 사례 소개

### 1.2 SEL(School English Level) 1~10단계 프로그램

SEL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각 단계별 심화·보충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단계로 되어있다. 각 프로그램의 대본과 SEL1~5의 교재는 홈페이지에서 PDF형태로 제공되어 학습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 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SEL(School English Level)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

	학년	프로그램
SEL 1	초등1~2	·1학기 : Alice's Wondergarden ·2학기 : Alice's Wondergarden
SEL 2	초등3	·1학기 : Go! Go! Time Girl ·2학기 : Word Circus!
SEL 3	초등4	·1학기 : Wow! Game Land ·2학기 : Gra, Gra, Grammar
SEL 4	초등5	·1학기 : Spy Zone ·2학기 : New Spy Zone
SEL 5	초등6	·1학기 : Tok Tok English! ·2학기 : Cyber Tales
SEL 6	중등1	·1학기 : What's up English / Nonstop English ·2학기 : Reading Adventure
SEL 7	중등2	·1학기 : Three Golden Keys / English Burger ·2학기 : Speaking Factory
SEL 8	중등3	·English Diary
SEL 9	고등1	·고기잡이 English
SEL 10	고등2	·맛있는 English

SEL1~SEL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율동, 노래, 플래시 애니메이션, 상황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 소리의 이해와 단어 및 문장 읽기와 쓰기의 기초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중학생은 SEL6~SEL8에 해당하며, 주로 읽기와 쓰기를 학습한다. SEL9와 SEL1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SEL(School English Level)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Alice's Wondergarden	파닉스를 이용한 알파벳, 낱말 발음 노래, 챗트, 율동, 애니메이션, 상황극, 동화
Go! Go! Time Girl	듣기와 말하기, 챗트, 퀴즈 요리와 연극을 활용한 학습 내용 보충, 심화
Word Circus!	초등학교 3학년 영어와 연계한 필수 어휘 학습 낱말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서커스 상황을 통한 인형극, 그림자 놀이
Wow! Game Land	듣기와 말하기 활동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문제 해결 학습 요리와 연극을 활용한 학습 내용 보충, 심화
Gra, Gra, Grammar	초등 4학년 영어와 연계한 문장의 기본 구조, 문법 노래, 애니메이션, 문법 게임
Spy Zone	주제 중심 임무 수행을 통한 듣기와 말하기 과학과와 사회과 내용을 활용한 영어 학습
New Spy Zone	임무 수행을 통한 문법 학습 문법과 연계한 주요 표현 연습
Tok Tok English!	주제 중심 듣기와 말하기 과학과, 사회과 내용을 활용한 영어 학습
Cyber Tales	초등 6학년과 연계한 문법 학습 문법을 활용한 쓰기 학습 일기, 편지, 이메일 형식
What's up English	언어 형식과 주요 표현 연계 듣기와 말하기 연습, 실제 상황에 적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 활동
Nonstop English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듣기, 말하기, 퀴즈, 게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 활동 과학, 역사, 수학 내용을 활용한 영어 학습
Reading Adventure	다양한 장르의 읽기 단계별 읽기 학습과 문제 풀이
Three Golden Keys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표현과 기본 문법 골든 키를 통한 문제 해결 학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 활동
English Burger	폭넓은 영어 사용 환경을 통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생들이 직접 시트콤에 참여하거나 리포터로서 진행 과학, 역사, 수학의 내용을 통한 실험 활동과 야외 활동

프로그램	주요 내용
Three Golden Keys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표현과 기본 문법 골든 키를 통한 문제 해결 학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 활동
English Burger	폭넓은 영어 사용 환경을 통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생들이 직접 시트콤에 참여하거나 리포터로서 진행 과학, 역사, 수학의 내용을 통한 실험 활동과 야외 활동
Speaking Factory	3단계별 말하기 학습 public speaking, persuasive speaking, drama
English Diary	중학교 3학년 영어와 연계한 실생활 영어 일기 형식의 생활 속 영어 학습 콩트를 활용한 구문과 문법 설명
고기잡이 English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어휘, 문법, 독해, 말하기 주제 제시, 어휘 탐구, 본문 이해 활동을 통한 반복 학습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읽기 게임 활동
맛있는 English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전문적인 영역의 글 이해 topic, structure, communication, activity topic에 따른 재미있는 영어 tip

### 1.3 방과후 영어

방과후 영어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 듣기, 독해, 문법, 어휘, 쓰기 영역이 각각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어휘, 쓰기는 Level3, Level4로 구성).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vel1은 초등학교 3학년~5학년, Level2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Level3은 중학교 1학년~2학년, Level4는 중학교 2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종합적인 구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레벨은 강의가 중심이 되어 내신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e-Study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인 'eStudy'는 영자신문, 영어동요, VOD영어동화, 유아영어단어 카드,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 초중등교과서단어장, 초등교과 Activity, Word Story로 구성되어 있다.

영자신문은 이용자의 수준별로 Kids, Teens, Junior, Adult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의 영자신문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 있으며, 국문 해석본 및 MP3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Kids와 Teens는 기사 원문에서 마우스 커서를 단어에 가져가면 단어의 의미가 팝업 창으로 제시되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수준별 각 단계는 시사연예 · 문화 · 비즈니스 등 세대별 관심사를 고려한 4~5개의 하위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동요’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콘텐츠로 영어동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함께 제공한다. 가사를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사 끄기, 다시보기, 반복보기 기능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암기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2009년 10월 현재 150개의 영어 동요가 서비스 되고 있다.

‘VOD영어동화’ 콘텐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과 외국의 동화와 우화를 영어로 각색한 5분 내외의 애니메이션을 동영상 재생 툴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막이 제공되어 쉽게 따라 읽으며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운로드도 가능하여 학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재생창에서 바로 인터넷 사전으로 접속이 가능하여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9년 10월 현재 100개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인 ‘유아영어단어카드’는 과일·동물·숫자·의류·음식·자연·직업·야채·색깔·교통수단의 10개의 카테고리별로 15개 내외의 영단어를 삽화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카테고리별로 다운로드 및 인쇄 기능이 있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짝 맞추기 형식의 단어 맞추기 게임이 제공되어 유아들이 놀면서 쉽게 영단어를 익힐 수 있다.

‘영어로 읽는 한국문학’은 해외에 소개된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본을 텍스트와 함께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이다. 현재 10 편이 제공되고 있다. 웹상에서 바로 들을 수도 있고, MP3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MP3 플레이어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다.

‘초중등교과서단어장’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교과서에서 뽑은 학년별 필수 단어의 뜻과 교과서 예문을 웹을 통해 서비스하는 콘텐츠이다. 초등학생 단어장은 교과서의 단원별로 제공되며, 중학생 단어장은 학년 전체를 통틀어 알파벳 순서로 제공된다.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 발음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단어장 인쇄, MP3다운로드, 단어장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초등교과 Activity’는 노래게임이야기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가 실제적으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교과과정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콘텐츠 유형은 플래시카드, 게임, 프린트, 노래, 이야기 등 다섯 가지이다. 각각의 콘텐츠는 교과서 단원별로 정리되어 제공되며, ‘Teaching tip’이 제공되어 실제로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Word Story’는 영단어의 어원과 철자에 담겨있는 문화사와 역사를 3분 내외 길이의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단어의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단어의 유래와 함께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제공하여 더욱 쉽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V.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English 활용 현황 분석

### 1. EBS English 이용자 분석

#### 1.1 가입자 및 순방문자 분석

- 2009년 4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 1백 76만 7천 815명
- 학기 중에는 지속적인 감소세, 방학 중에는 상승
- 2008년 12월, 2009년 3월 가입자 대폭 상승
- 순방문자 수 : 평균 35만 명

#### 1.2 지역별 이용자 분석

- 서울, 경기 지역 가입자 수가 전체의 42.27%(광역시까지 포함 시 70.89%)
- 이용자의 단순 양적 비교에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심각한 격차가 존재

〈표 III-8〉 EBS English 지역별 이용자 수

(단위 : 명)

지역구분	인원수	비율(%)
경기도	348,357	22.75
서울특별시	298,893	19.52
부산광역시	108,617	7.09
경상남도	100,999	6.60
인천광역시	90,654	5.92
대구광역시	86,083	5.62
경상북도	80,436	5.25
충청남도	57,972	3.79
대전광역시	55,664	3.64
광주광역시	55,298	3.61
전라북도	53,425	3.49
전라남도	49,876	3.26
충청북도	43,245	2.82
강원도	42,859	2.80
울산광역시	41,947	2.74
제주도	16,947	1.11
계	1,531,272	100.00

### 2. EBS English 수용자 분석

#### 2.1 분석 방법

- 분석 기간 :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간
- 데이터 수집 : 랭키닷컴(<http://www.rankey.com>)

- 조사 대상 :
  - 1차 - 학생(초중등), 교사(초중등), 학부모 각 400명
  - 2차 - 학생(초중등) 11,282명, 교사(초중등) 6,038명, 학부모 240명
- 조사 방법 : 각 집단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
- 설문 영역 : EBS English 이용 행태, 만족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개선방안

## 2.2 학생 설문 결과

### 2.2.1 이용 현황

- 영어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 : 관심있다 89.7%, 중요하다 94.2%
- 학교 교육 외 영어 학습 방법 : EBS English(TV, 인터넷) 49.7%
- EBS English 시청 빈도 : 한 달에 1~3회 31.6%, 일주일에 1~3회 31%
- 1회 시청시 이용 시간 : 1시간 65.7%, 2시간 23.1%
- EBS English 주요 이용 미디어 : 인터넷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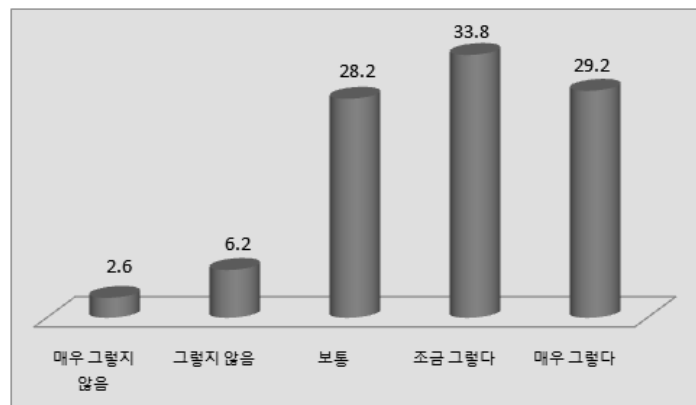
⇒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미디어 역시 인터넷 82.8%, 그 이유로는 이용자 스스로가 학습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고(64.7%), 질문대답 등의 상호작용이 TV보다 빠르기 때문(30.6%)

### 2.2.2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 만족한다 75.4% (조금 그렇다 46.3%, 매우 그렇다 29.1%)
- EBS English 만족 요인 :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다.
- EBS English를 불만족 이유 : 바로 질문을 하거나 해답을 얻을 수 없다.
- 실질적인 성적 향상 효과 : 그렇다 60.4% (조금 그렇다 47%, 매우 그렇다 13.4%)
- 지속적 이용 의사 : 계속 이용할 것이다 97.4%

### 2.2.3 목적 달성 효과 및 개선점

- EBS English의 목적 달성 효과 :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적 달성 71.7% (매우 그렇다 46.5%, 조금 그렇다 25.2%)



〈그림 IV-1〉 EBS English가 사교육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단위: %)



- EBS English가 영어 교육에 기여한 점 : 학교영어교육 보완 기여 61.3%  
(그렇다 34.8%, 매우 그렇다 26.5%)
- EBS English의 개선점 : 프로그램 구성 52.7%  
⇒ 프로그램 구성 가운데 '신규 및 다양성이 확보된 프로그램 필요' 18.1%

## 2.3 교사 설문 결과

### 2.3.1 이용 현황

- 영어에 대한 중요성 : 중요하다 92.3% (중요하다 40.5%, 매우 중요하다 51.8%)
- EBS English의 수업 활용도 : 보통 38.5%, 수업에 활용 47.2%  
(조금 그렇다 34.4%, 매우 그렇다 12.8%)
- EBS English 시청 빈도 : 일주일에 1-3회 43.6%

### 2.3.2 만족도

- EBS English 만족 요인 :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교육이 가능하다.
- EBS English 불만족 요인 : 바로 질문을 하거나 해답을 얻을 수 없다.
- EBS English를 통해 충족된 요건 : 학생들의 영어에 관심 증가
- 지속적 이용 의사 : 앞으로도 이용 96.9%

### 2.3.3 목적 달성 효과 및 개선점

- EBS English의 목적 달성 효과 : 영어 소외지역 교육기회 제공
- EBS English가 영어 교육에 기여한 점 : 실용영어 확대
- EBS English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 그렇다 63.0%  
(조금 그렇다 33.8%, 매우 그렇다 29.2%)
- EBS English의 학생 영어 성적 향상 효과 : 그렇다 46.7%  
(조금 그렇다 38.5%, 매우 그렇다 8.2%)
- EBS English 필요 프로그램 : 교사 영어수업 기술 연수 28.2%, 교사 영어 회화 연수 23.6%
- EBS English의 개선점 : 실용적인 교재를 개발, 수준별 영어수업이 제공, 접근 기술 보완, 흥미있는 콘텐츠 공급 등

## 2.4 학부모 설문 결과

### 2.4.1 이용 현황

- 영어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 : 높다 85.8%, 중요하다 95.2%
- 영어교육 전문 채널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인지 : 알고 있다 71.4%  
(잘 알고 있다 57.1%, 매우 잘 알고 있다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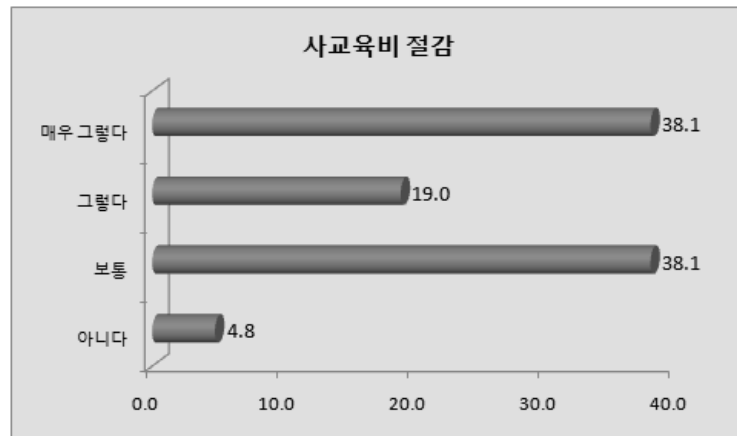
- 자녀들의 EBS English 시청 빈도 :  
한 달에 1~3회 33.3%,  
일주일에 1~3회 28.6%
- 사교육 이용 실태 : 학원 23.8%, 개인과외 19.0%
- 영어 사교육비 지출 정도 : 10만원 미만 47.6%

#### 2.4.2 만족도

- EBS English 입시 영어 교육 도움 정도 : 보통이다 50%
- EBS English 실용(자격) 영어 도움 정도 : 그렇다 40%, 보통 40%
- EBS English 경제적 도움 정도 : 매우 그렇다 50%
- EBS English 학교 영어 교육 보충 : 그렇다 45%
-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 형성 : 그렇다 50%
- 학습 시간에 대한 조절 기능에 대한 만족 : 매우 그렇다 45%
-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만족 : 매우 그렇다 60%
- EBS English를 통한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 : 보통이다 70%

#### 2.4.3 목적 달성 효과 및 개선점

- EBS English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 절감되었다 57.1%  
(절감되었다 19.0%, 매우 절감되었다 38.1%)



〈그림 IV-2〉 EBS 영어 교육방송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인식(단위: %)

- EBS English의 교육 격차 해소 효과 :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52.4%  
(기여했다 23.8%, 매우 기여했다 28.6%)
- EBS English의 영어 학습 환경 조성 효과 :  
영어학습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57.2% (그렇다 28.6%, 매우 그렇다 28.6%)
- EBS English의 개선점 : 다양한 콘텐츠 제공, 활발한 홍보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영어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EBS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 프로그램과 인터넷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한국교육방송(EBS)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성인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한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7년 4월 6일부터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을 무료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초중등 영어학습 무료 사이트 개설이라는 목표 하에 2007년 7월에 EBS English의 웹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EBS English가 공익채널에서 제외되어 의무전송이 중단되어 그간 케이블TV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을 수신하던 많은 가구에서 더 이상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EBS에서는 웹사이트 개편, IPTV 런칭 등 교육 수혜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해 왔다.

EBS English 프로그램 콘텐츠와 웹사이트 전용 콘텐츠의 구성, 내용,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EBS English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의 만족도 조사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EBS English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영어 공교육 보강을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강화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EBS English 프로그램 편성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SEL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콘텐츠 확보가 차후 EBS English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이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고, 과거 콘텐츠의 재방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EBS English 제작 예산의 확보이다. 공적 자금의 투입과 함께 EBS English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콘텐츠를 사립 영어 교육 단위에 판매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EBS English의 모든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모르고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EBS English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인 도시와 농·어촌간의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농·어촌 신규 이용자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과 같은 지방의 다양한 교육단위와의 연계를 통한 영어경시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과 같은 행사의 기획 및 실행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선 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 학생과 함께 교사는 EBS English의 직접적인 수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지원의 강화는 학교 교육에 EBS English의 활용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 교수법, 별도의 교사용 교재 제작 지원, 영어 교사를 위한 영어 회화 연수, VOD 등의 교재 지원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 영어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건임을 깨닫고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EBS English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 (I)』. 서울: 대한교과서.

김동희 (2009). 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김현진 (2006). 『교육정보화 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혜은 (2007). 『e-러닝의 심리학적 기반』. 서울: 학지사.

김희균 (2007. 3. 28). EBS “영어 이제 안방에서 배우세요”. 『동아일보』.

대전초등학교방송연구회. (2004).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대전초등교육방송연구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민덕가이승만김규화 (2008). 영어교육방송 EBSe 프로그램 활용 실태 분석. 『Primary English Education』, 14권 3호, 66~91.

박인미. (2003). 교육방송 영어 드라마를 활용한 초등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 논문. 전주 교육대학교, 전북.

안성훈 (2008). 이러닝을 통한 성인 장애인의 학력인정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권 7호, 252~258.

윤여순 (2000). 기업에서의 성공적인 가상교육 구현을 위한 총체적 전략: LG Cyber Academy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교육연구』, 2권 1, 93~117.

이건해 (2001). TV 방송영어 프로그램 분석 척도 개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이병문 (2006). 핀란드 들여다보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이병민 (2008). 영어공교육 개혁의 전망과 가능성. 『2008년도 영미문학연구회 제25회 봄 정기학술대회: 영어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문』. 1~13.

이완기 (1985) 영어의 청취력이해 증진을 위한 텔레비전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방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이용환 (2001) 교육방송 비디오 자료 활용수업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전효찬. (2006). 영어의 경제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최수영김병훈 (2007). 인터넷 교육방송을 활용한 도농간 초등학생 영어 듣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의 수준차 접근방안. 『영어교과교육』, 6권 1호, 109~141.

한국교육방송공사 (2008). 『대한민국 영어강국 만들기 프로젝트』. 서울: 한국교육방송공사.

홍세기 (2009. 2. 27). 사교육시장 총 규모 20조 9000억...교육당국 경감대책 마련. 『뉴스웨이』.

Brown,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Longman.

Dale, E. (1969).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Richard, B. (1971). *Instructional televis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Tomalin, B. (1986). *Video, TV & Radio in the English class*. London: Macmillan publishers.

van Ek, J. & Trim, J. (1998a). *Waystage 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Ek, J. & Trim, J. (1998b). *Threshold 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Ek, J. & Trim, J. (2001). *Vant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영어 공교육 내실화와 방송 사교육비 경감



진 경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영어 공교육 내실화와 방송 사교육비 경감

진 경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오늘의 토론 주제인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하여 안선희 박사님과 함정현 교수님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토론을 하고, 영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함정현 교수님이 소개하신 EBS 영어 방송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고 영어 교육 측면에서 사교육의 대체제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EBS 영어 방송의 활용율이 낮은 편이고 지방이나 중소도시로 갈수록 더 낮은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어전용방송을 개국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활용율이 낮다면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함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EBS 영어 방송이 공익 채널에서 제외되어 지역 케이블에서 방송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존 EBS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과 수능 시험 출제를 연계한 정책과 같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EBS 영어 방송과 영어 입시 등과의 연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박사님은 영어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첫째, 대학입학전형의 개선-모집단위별 특성화, 내신 절대 평가 도입 및 부담 경감, 외고 특혜 폐지 등 -, 둘째, 외고 체제 개편 및 입학 전형 개선, 셋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수정 및 영어 점수 경쟁 완화를 통한 영어 사교육 수요 축소,

넷째, 초, 중학생 방과후 학교 영어 무상 교육 추진, 다섯째, 영어내실화 방안 추진, 여섯째, EBS 중심 사교육 대체 확충, 일곱째, 온오프 연계 학습 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선희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영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중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중 영어 말하기·쓰기 중심의 수업과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 정책에 대비하여 영어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신중히 고민해봐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와 쓰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은 듣기와 읽기 중심의 현행 수능 체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한 실용 영어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평가 내용과 방식이 같이 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어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읽기와 듣기만 가르치고 말하기와 쓰기를 가르치면 안된다는 논리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북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대입 시험에서 영어 말하기와 쓰기 시험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학교 영어 수업은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인 EIKEN은 이제 일본대학입시의 영어시험 성적과 더불어 1/3 정도의 대학에서 입학 전형 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하여 공교육 혁신과 강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안선희 박사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세 번째 항목에서 현행 수능 시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학이 선택적으로 말하기 쓰기 시험을 도입할 것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완화할 것, 그리고 국가영어능력시험을 자율 반영 단계를 거친 후 성과를 검토하여 전면 도입 결정을 할 것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분 발제 원고를 읽고 제가 제안하는 영어 공교육 질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제시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사의 능력 향상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수업이고 둘째는 영어 환경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수준별 수업 및 교육 과정의 도입입니다.

영어 공교육 질 제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학교의 정규 영어 수업 시간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수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영어수업의 질제고는 영어교육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영어 사용이 학교 수업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하교 수업은 실생활과 달라 일정 부분 교사의 설명 및 학생이 연습하는 단계가 필요하지만 수업의 일정 부분 혹은 많은 부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실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익숙한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교사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에게 서울시교육감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영어교사의 경력·연수실적·자기계발실적을 지수화한 ‘TEE 연수지수’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TEE 인증서(SMOE TEE Certificate)’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TEE 연수지수가 30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 ‘TEE-A 인증서’와 경력이 7년 이상이고 TEE 연수지수가 80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 ‘TEE-M’ 인증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TEE-M 인증서를 취득한 교사는 영어교사들의 멘토, 교사연수 강사, 수업시연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자기계발연수비도 지원받습니다.

반면 TEE 연수지수 목표 미도달 교사에게는 TEE 연수지수를 본인 및 학교장에게 제공하고 연수의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인증을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능력과 영어 교수법 지식을 측정하는 ETPT(English Teaching Practice Test)와 ETKT(English Teaching Knowledge Test) 시험을 개발하였는데 이번 10월에 서울시 영어 교사 500명이 이 인증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영어 미디어 환경 구축입니다. 영어 능력 향상은 영어의 투입(Input)과 상호작용(Interaction)의 양과 비례합니다. 영어의 투입(Input)은 영어로 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영어된 영화, 팝송, 영어 잡지 등 영어로 되어진 모든 것이 투입(Input)이라고 정의합니다.

상호 작용은 원어민(혹은 영어를 말하는 자국민)과의 영어 대화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영어 투입이나 상호 작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영어가 공용어도 아니고 영어로 된 미디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 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영어가 공용어는 아니지만 공영 방송에서 몇 개의 영어 방송 채널이 있고 모든 영어 방송은 자국어 자막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북유럽 국가(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학생이나 교사를 인터뷰 해보면 자신들은 TV를 보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에서 자국어 자막처리가 되어있는 영어 방송을 방영하는 목적은 국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60년대부터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영어 학습을 위한 교육 방송이 아니라 드라마나 쇼 프로와 같은 일반 방송인데 영어로 방영되며 모두 자국어로 자막처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영어에 손쉽게 노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TV 영어 자막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입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 학생간 학업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학년에서 일률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년에 올라갈수록 격차가 심화됩니다.

따라서 영어 과목의 경우 무학년제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코스를 단계적으로 이수하거나 원하는 과목만 이수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영어 과목에서 'Basic' 과목은 정규 영어과목 보다 수준을 낮추어 가르치며 4년제 대학에서 정규 영어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지역 학교나 비즈니스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강합니다.

English (Regular)는 보통 각 학년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으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인정합니다.

English Honor과목의 경우 English (Regular)보다 심화된 과목이고 English AP과목은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고 학점 인정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교육에서의 영어 과목을 수준별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평가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안들이 반드시 사교육 경감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에 참여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의사소통중심의 영어 수업을 하며, 미디어를 통해 주변에서 손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영어 사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소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토론



이 명 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실장)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토론

이 명 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1. “문제 규정” 과 “접근 관점” 에 대하여

### □ 영어 사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 사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특히 ” 정책적 문제가 무엇인가” 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함.
  - 주제발표문에서 제시된 영어 사교육 문제의 원인, 해결 방향과 대책에 대체로 공감하면 서도, 무엇보다 먼저 “문제의 규정” 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교육적 인 관점과 분석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듦.
  - 사교육 및 영어 사교육 문제는 국민적 고통이자 국가적 과제임. 또 이 문제에 대한 관 점, 접근방식, 해결방안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그리고 사교육 문제의 성격 자체가 단 순히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 학부모의 심리 구조, 지역과 사회 환경과 문화,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교육체제, 사교육시장의 행태 등 교육 및 생활 전반과 관련될 뿐만 아니 라 교육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도 대입제도 및 대학 자율화, 평준화 제도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 교육과정 정책,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정책 등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심 층적인 성격을 지님.
- 사교육의 결정자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쉽지 않은 난점을 지님. 극단적으 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높은 경우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할 수도 있는 정책적 난점이 있음.

- 개인의 사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의 경우 그 정책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문제의 규정이며, 그 중점과 우선순위의 수립임(사교육비 금액 감소인가, 학생들 간의 경쟁 완화인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인가, 사교육시장에 대한 통제인가인가, 정부의 사교육 서비스 제공인가 등).
- 주제발표문에서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 과 ‘영어교육 내실화’ 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둘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를 지적하며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 있음. 그런데 영어 사교육비 경감은 사교육 ‘억제’ 를, 영어교육 내실화는 사교육 ‘수용’ 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정책수단의 동원(방법, 시간, 비용 등)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 주제발표문에서는 사교육의 성격과 원인을 단순 학업성취 보충이 아닌 대학입시 경쟁적 전략 수단이라고 진단하고, 그 대책으로 입시경쟁 완화와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은 자유주의(다원주의)보다는 평등주의 또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있고, 정책방안에 있어서도 내신 비중 완화, 외국어고 폐지, 영어교사 인증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사교육 수용의 관점보다는 사교육 억제의 관점에 더 비중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즉시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에 더욱 유의하는 관점이라 하겠음. 이러한 접근은 사교육 문제의 현실적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입 및 고입 경쟁전략으로서의 영어 사교육비 증가가 엄연한 현실이고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에서만 문제해결(입학경쟁 완화 또는 제거)을 찾게 되면 다른 문제가 야기되거나 교육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들(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학교)선택권 보장, 학교(사학)의 학생선발 등 자율권 확대,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 등)을 간과할 소지가 있음.
  - 초·중학교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를 면밀한 인과관계 분석도 없이 외국어고 입시열풍 때문으로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임. 이런 주장은 외국어고 관련 영어 사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및 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임. 학생수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외국어고의 비율은 1.4%가 채 되지 않고, 이 중에서 외국어고 입학에 사교육 실시 학생은 전체 고교생의 10%가 안 될 것으로 추정됨. 발제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8년(1-11월) 영어 해외연수 유학경비가 11.5%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더라도 외국어고가 해외유학 수요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측면이 있음. 외국어 학원의 증가 추세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영어 사교육 수요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취업·재취업, 직장 재교육으로 인한 영향도 상당한 것이 현실임.



-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단기 처방식 사교육 억제 관점에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원칙을 확립하고 사교육 억제와 수용,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보다 장기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글로벌 시대에 영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어 교과 중심의 공교육 강화라는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음. 사교육의 문제는 어느 특정 교과 만이 아닌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영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영어교육의 목적과 성적을 분명히 확립하는 일 (실용영어 능력 향상인가, 영어 전문가 양성, 전인교육 차원인가)이 가장 중요함. 동시에 영어 교과 뿐만 아니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큰 방향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영어 사교육비 대책에 대하여

### 1) 정책의 중점 및 원칙 수립

- **공교육 중심, 학교(교원) 중심**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와 교원의 교육역량 추동 및 지원
  - 교실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학력 책임지도 체제 구축
  -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확대 등 학교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 향상
  -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선, 교원 잡무 근절,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등 교원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체제 확립
- **사교육의 공교육 보충적 기능 수행, 불필요한 사교육(시장) 통제**
  - 필요 시 학원의 교습시간, 학원비 등 운영 통제 : 학생의 건강권, 안전권 보장
- **국가의 사교육 서비스 강화** : 방과후학교, EBS 활성화

### 2) 대입전형 관련

-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대학이 모집단위에 따라 전공학습에 대한 선수학습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내신과 수능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입 특성화를 추진한다면, 대입전형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공과 진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므로 학생의 입학경쟁 및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대입전형은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특히 현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 방향에서 고교교육보다 대학선택이 더 비중이 커졌음. 대입전형을 포함한 대학의 자율화 추세에서 수능등급, 내신등급은 그 의미가 약화되었음

#### □ 내신 반영 비율 적정화(축소)는 재검토해야 함

- 대입에서 내신의 명목 반영 비율은 높으나, 학교간 학력격차로 인해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할 경우 공교육의 입지를 더욱더 위협할 수 있음. 내신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내신 반영 비율의 확대보다는 상대평가, 등급제라는 내신 산출방법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내신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신중 검토

- 현행 내신 9등급제는 서열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생간 과열 경쟁 및 내신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학교별 학력격차로 인해 학교 내 상대적 서열만을 중시하는 내신에 대한 불신으로 대학에서의 반영 비율이 낮음.
-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은 학생의 특정 영역의 성취 강조 및 교육평가로서의 타당성, 학력격차로 인한 내신 불신 문제 해결, 내신 과열 경쟁 완화, 교사의 학생평가권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
-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평가 난이도 조정을 통한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 마련
  -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한 공통의 성취기준은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 구체적 목표 체계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수립·시행
  - 교육청이 학교 자체 학력평가기록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학교 내신의 신뢰도에 대해 판별하는 방안 검토
  - 학교별 여건과 특색이 다르므로,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특징과 장·단점·문제점 등을 함께 기재하여, 대입 평가결과를 해당 학교에서 해석·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 점수 기재 방식이 아닌, 서술 기재 방식으로 확대, 학생의 구체적인 성취도 판별을 도모. 단, 각 교사가 심층적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원 수급,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절대평가 내신에 대한 대학의 신뢰와 수용
    - 고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전형의 기본방향 전환
    - 모집단위별, 학교별 전형요소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한 수학능력 검증

□ 무엇보다 고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탈피가 필요함.

- 고교 교육과정의 대입에 종속된 구조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대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위한 경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음.
- 고교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의 정착이 필요함.
  - 고교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현실에 대한 대학의 이해 필요
  - 개별 대학의 전형 기준과 방법 등을 고교에 충분히 제공
  - 대교협 '교육협력위원회' 에 고교 교원 포함 등 재구성, 현장성 강화
-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정당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통해 학력격차, 고교체제 및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3) 외국어고 및 특수목적고 개편 관련

□ 사교육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평준화 정책 및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외국어고를 사교육 대책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님
  -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외국어고 및 특수목적고라는 고교 유형이나 제도적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대학 진학 및 우수한 교육여건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심리에 있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외국어고 그 자체가 아니라 명문대학 진학과 좋은 교육여건(학습 분위기, 우수한 학생과 교원, 교육프로그램의 질, 시설 및 재정 여건 등)에 있으므로, 외교 대체 사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함. 외국어고는 사교육비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님. 외국어고를 폐지해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할 수 있음.
- 외국어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평준화 정책의 획일화 교육 한계 극복, 특수 분야의 교육 및 수월성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해소, 국제화 시대에 따른 특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외교의 긍정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 바,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상대적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한 소모적 사교육의 근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제,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선발고사 출제, 해당학교의 목적에 맞는 입학전형의 실시 등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단위학교 자율권 보장, 학교자율화 추진 등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임.
- 고교 체제의 단순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고교 유형 등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평등과 통합 위주로 운영할 할 것인가, 다양성과 수월성(경쟁력) 위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 외국어고의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

- 특수목적고를 폐지 또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및 하향 평준화 문제점 보완, 학생·학부모의 교육(학교)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 학교(사학) 자율화 및 경쟁력 제고 방향과 배치되는 퇴보적 발상임.
  - 외고 폐지 및 특목고 폐지, 특성화고(자율고) 전환 및 희망학생 대상의 추천배정은 평등주의 관점 및 평준화 확대 논리로서,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 및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갈등 또는 대립적임(현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 평등(형평)보다는 다양성(수월성)을, 규제보다는 자율을 교육정책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 외고와 특성화고, 자율고는 도입목적, 교육과정 운영 내용이 다름. 외고는 전문교과 교육과정만을 82단위까지 운영할 수 있어 현재 자율고의 교육과정 자율권 30% 수준보다 허용범위가 넓음. 외고의 전문교과 교육과정 82단위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교육으로 특정되어 입시 사교육으로 변질될 위험이 특성화고, 자율고보다 적음.

## □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외국어고교 개선 4대 방안

- 우선,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학생선발 원칙 준수 및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
  - 2009. 3. 27,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3조)은 선발고사의 방법을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 준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가 선행되어야 함.
- 입학전형 개선
  - 수학, 과학 가중치 반영 비율 1배 이내로 축소 등 관련 외국어 능력 및 해당 영역에 대한 내신 위주로 전형
  - 외고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특별전형 금지 및 비율 축소
- 교육과정 정상화
  - 자연계 집중이수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가 필요함. 현재 수도권 소재 외고 15개교 중 14개교에서 수학심화 교과와 과학심화 교과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음.
- 외고 졸업생에 대한 대입 정합성 제고 및 외고에 유리한 우대전형 폐지
  - 외고 졸업생의 이공계 교차지원 제한 등 대학 어문계열과의 정합성 제고
  - 대입 수시입학 전형 시 AP과목 성적요구, 외국어 교과 58단위 이수자(외고 82단위, 일반고 35단위) 선발 등 외고에 대한 실질적 우대전형 폐지

4) 영어 공교육 완성 정책 수정 관련

- 영어 사교육 수요는 점수 경쟁보다는 고입, 대입에서의 성공, 영어 구사능력에 대한 높은 수요에 기인하므로, 영어 점수경쟁 완화는 영어 사교육 축소 방안으로 타당하지 않음(발제 내용도 영어 점수 경쟁 완화와는 무관함).
- 영어전용교사 인증제 도입 관련
  - 발제자는 ‘영어 전용 교사’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이미 ‘영어 회화 전문강사’ 로 정리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
  -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 인증제 도입은 현 임용방식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되어 자격이 주어진 교원임에도 또 다시 영어능력을 재인증한다는 것임. ‘영어교사 영어수업능력 인증제도’ 는 현직 교사들이 아닌 교원양성기관에서 영어수업 능력 표준인증 또는 졸업인증 등의 제도를 통해 졸업 전까지 최소 수준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질 관리 기제로는 활용할 수 있음.
  - 현직 영어 교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신규 교원들에게는 임용 전 영어수업 능력검증을 위한 표준(졸업)인증을 시행해야 함.
-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방안 관련
  - 발제자가 제시한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제도 도입방안은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떨어짐.
  - 영어 능력평가의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은 발제자가 제시한 영어 점수경쟁 완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영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음.
  - 영어능력평가시험과 영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교과서를 연계하는 방안은 학교에서 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바람직함.

5) 초중학생 방과후학교 영어 무상교육 관련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할 정도로 영어교육의 가치가 높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발제자는 무상교육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세정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타당하지 않음.
- 무상교육을 통한 영어 격차 해소가 계층간 격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과후학교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어 사교육은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영어 학습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 영어 교사로 하여금 방학 중, 최소 수당 또는 무상으로 교육하게 하는 방안은 교사간 형평성 문제가 있음. 그리고 교사의 업무영역이 정규 수업 이외에 방과후학교 지도까지 확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비용절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음.
- 영어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로 해소하려는 취지이지만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의 질이 성패의 관건임.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과 교사의 질 담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영어친화적 환경 제공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영어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 발제자의 방과후학교 영어무상교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방과후학교를 통한 다양한 영어 학습 기회 제공은 필요함. 그러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함께 이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각급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체제 마련
    - 공교육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준별 영어수업 제공 등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대
    - 방과후학교 영어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 6)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추진 관련

- 일반학교 외국어교육, 국제교육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운영 확대는 긍정적이고, 교원 양성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함.
  -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사대 양성부터 회화, 말하기, 듣기 능력의 강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임.
    -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한미교육연맹(KoAm Education Alliance)과 MOU를 체결, 2010년도에 미국에서 초등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교생실습을 실시할 예정임. 성공적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교육대학생의 15~20%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 예정임.
- 현직 영어 교사들의 질 제고 방안은 재검토되어야 함.
  - ‘영어능력평가시험’ 의무화는 영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 다른 교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영어교과에만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영어교사의 연수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의 기제로 활용하여 미개선 시 행정교사로 배치 검토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함.

- 행정교사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 및 행정실의 행정직과의 갈등 우려
- 현재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내용인 교원들의 행정업무 감소 방안과도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교과부는 학교 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직무기준 등을 정립해 교원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 짓도록 하고 있음. 다만, 연수기준 미달교사를 행정교사화하여 교무행정전담 팀에 포함된 교사는 무능한 교사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됨.
-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제로 활용하고,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학교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영어 교원정책 개선이 필요함

- 영어 교수학습에 뛰어난 영어교사의 발굴 및 육성, 영어 교사 연수 강화, 업무경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구성,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학생의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선택의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직 영어 교사의 연수를 기관 중심의 출석연수에서 탈피하여 원격 연수, 자율 연수, 맞춤형 연수, 해외 연수가 확대 되어야 함.

7) EBS-English 중심 사교육 대체재,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관련

□ 영어 학습기회의 확충을 위한 사교육 대체재 활성화는 긍정적임. 다만,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 교원수급 문제 해결
  - 농산어촌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계약직 영어 보조교사가 영어 체험학습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농산어촌이 아닌 지방 소도시 소재 센터의 경우,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이 없어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많음.
  - 우수 교사 파견제 도입 및 이를 위한 승진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교육청 단위로 학교에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멀티미디어 DB자료, 영어동화책 등이 확보된 어린이 영어도서관 확충
  -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영어전용교실 및 영어체험센터 구축 확대
  - 영어 전용 라디오 채널 개설, 뉴스 프로그램 제공

□ EBS 영어 교육방송의 다양한 contents 개발, 접근성 및 피드백 개선

- EBS English에 대한 관심과 효과성,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임. 학생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교원들은 접근성 개선 요구가 높음.
- 우수 영어교사 EBS 파견제 확대 실시
- 즉각적인 피드백 체제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별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공간이 필요함. 이용자간 질문-응답 활성화, EBS에서는 네트워크 관리 지원이 필요함.
- 단위학교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활용도 제고





# 교육공동체가 네트워킹 한 EBS 교육방송 활용



서 대 식

(면은초등학교 교장)



# 교육공동체가 네트워킹 한 EBS 교육방송 활용

서 대 식

(강원 면은초등학교 교장)

시대를 막론하고 늘 교육의 당면과제는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가르쳤나?’ 일 것이다. 발제자의 원고에 의하면 EBS 교육방송 활용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확실하지만 정작 학교교육과 관련한 도움, 즉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가르쳤나에 대한 제시는 불분명하다. 특히 EBS English 이용자나 수용자 분석은 일반적 경향파악이라고 하겠지만 현장실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일례로 일부 군소재지 학교에서 EBS English를 학교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실태는 초등 1교(학교장 의지), 중학교 1학년(영어 담당교사 의지로 팝송동화 일부), 고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 1. 소프트웨어 부분(교육과정)

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부담** -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SEL4 Spy Zone(1학기)과 New Spy Zone(2학기), 초등5,6학년 교과서영어, 초등5,6학년 영어(Me? Mimi!)이다. 학년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교사나 학생이 제작성격, 내용, 활용방법을 제대로 몰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학년, 학기별 수준차 비교** - 일례로 초등학교 5학년 Spy Zone은 1학기, New Spy Zone은 2학기에 시청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Spy Zone은 사회·과학과의 내용이 영어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서 2학기에 공부하고 있는 New Spy Zone보다 수준이 높다. 그러므로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과학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영어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며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한다.

다. 학생 및 교사, 학교장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방송 - 프로그램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 이수, 교과진도 필수 확보, 국가예산 지원을 통한 다양한 영어 방과후 학교(화상교육, 원어민, 멀티자료 활용 등) 수행, 내신 성적 관리 간접 도움, 교과중심의 지역 교육청 및 국가수준 평가대비에 활용 순위가 밀려 있다.

## 라. 대안

- 1)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된 EBS 인터넷 교육방송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학부모, 현장 교사들의 의견 참여 및 반영률을 높인다.
- 2) 시·도교육청별 영어 교수학습지도 유명교사의 EBS 영어교육방송 출연을 확대하고, 파견 근무제를 고려한다.
- 3) 대통령이 언급한 친서민 국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EBS방송국과 교과부,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및 협력을 시스템화 한다.
  - 기존의 교육방송 담당 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업무, 역할 강화
- 4) EBSe 제작팀 또는 컨설팅 팀이 조직되어 학기초 16개 시도별 380여 지역교육청 단위로 초,중,고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EBSe 활용방안 설명회를 갖는다.
- 5) 교사가 방송내용을 사전인지하고 방송 프로그램 지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영상별로 한 페이지 정도 요약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교육과정의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 자료(방송내용), 활용(학교교육과정과 연계, 투입), 적용 학습모형, 평가 방안을 책자화 혹은 CD로 제작하여 전국 각급 학교별로 배부한다.
- 6)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10분 이내임을 고려하여 단위 프로그램의 방송분량을 줄이고, 기존의 프로그램 분량을 유지할 경우 테마별로 학습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분절투입이 가능하도록 학습과정 정리 및 구성 공간을 둔다.
- 7)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교사 연수시 교육방송 관련 활용연수를 필수화 한다.

## 2. 하드웨어 부분(교육시설, 설비)

가. 인터넷 영어교육방송 수신 속도 부족 - 학교 랜망 속지연과 수업 중 중간 중간 멈추는 현상이 잦아 시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나. 수신시설 설비 경제적 부담 및 수신제한 - 현재 일선학교에서 영어교육방송을 수신하는 방법은 첫째 sky 유료방송 수신, 둘째 무료 위성방송 수신, 셋째 컴퓨터 VOD 수신, 넷째 IP-TV 또는 유선방송 수신이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각 교실별 수신기 설치비용이 크며 또 가정에서의 수신이 제한되어 청취지도가 힘들고, 공시청 경우도 수신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는 무료위성 수신시설 비용이 18만원에서 23만원이

들며, 공청시설을 할 경우 첫번째 방법과 같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유료 채널로 전환하면 스크램이 걸려 수신이 불가할 수 있으며, HD방송 수신 방법으로 전환될 경우 장비 교체료가 발생된다. 셋째는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고화질로 청취할 수 없고, 시청 중 컴퓨터 및 인터넷의 다운으로 청취 불능 상태가 오기도 한다. 한편 각 가정에서도 EBS 사이트 가입 후 반드시 초고속 인터넷 시설이 필요하다. 넷째 유선방송은 지역별로 청취할 수 없는 곳 즉 난시청 지역이 많으며, IP-TV 콘텐츠 보급율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 학교현장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다.

**다. 가정 등 학교 외 수신시설 불비** - 가정에서의 EBS 시청률이 저조하며 과제를 통한 학생들의 상시 자주 학습이 곤란하다.

#### 라. 대안

- 1) EBS 영어교육방송의 원만한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청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터넷 증속 작업이 필요하며 인터넷 속도가 적어도 10Mbps 되어야 할 것이다.
- 2) 영어교육방송과 ebs-1, ebs-2 채널 모두 지상파로 동시 송출을 바라며, 난시청 지역의 무료 HD 위성수신 장비 보급지원 및 각 가정 시청지원이 필요하다.
- 3) SKY 위성채널에서의 학교 및 가정에서의 학생 청취시 할인 혜택이 주어져야 하겠다.
- 4) 난시청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 3. 휴먼웨어 부분(네트워킹)

**가. EBS 영어교육방송에 대한 일선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이 적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 방송내용, 시간, 활용방법,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함

**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EBS 영어교육방송 홍보가 별로 없다.**

#### 다. 대안

- 1) EBS 교육방송 정체성 확립 - EBS방송국에서는 먼저 학교교육 지원중심의 교육방송과 평생학습 차원의 사회교육방송, 공교육 지원중심의 국가방송과 수익창출을 배제할 수 없는 공기업 중 한쪽을 선택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겠다.
  - 2) 방송역할 증대를 통한 소외지역 교육복지 지원,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방송 역할과 국가지원 예산 확충을 위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 대통령 교육자문위원회, 문공위, 방송통신위, 국회의원 및 전문위원, 교원단체, 교과부 e-러닝 담당부서 협조

- 3) EBS 전국교육방송 활용 연구대회의 영어부문 우수연구 교사를 교사연수 강사 및 교육 우수 사례로 소개한다.
- 4)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 학습동기를 충족케 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모니터 요원을 확보, 활용한다.
- 5) 학교운영위, 학부모회의, 일선교사 중심의 전국교육방송연구연합회가 EBS영어교육방송 활용 홍보에 앞장선다.
- 6) 공문시행 및 행사주관 등 교육방송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행·재정적 협력이 요청된다.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생각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 영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생각

강 윤 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 1. 영어 사교육비 증가 원인의 또 다른 측면

○다른 사교육비에 비해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이 전체적인 영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어렵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국가 위상 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영어수요가 전 사회분야로 확대. 과거에는 영어가 외교관이나 기업의 수출/수입 관련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 외국어로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치, 경제, 금융, 교육, 문화, 체육, 연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 교류 및 행사 등이 진행될 뿐 아니라 관광, 쇼핑 등의 민간교류가 대폭 확대되어 영어가 특수 전문영역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외국어가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같이 웬만하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자격증처럼 일반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영어 사교육을 부추김.

-고학력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대학진학률

-조기 언어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2. 영어 사교육비 경감대책

○영어교육에 대한 강한 수요는 전국적인 반면 영어교육의 기회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 방안 앞서 소외지역 및 소외 학생에 대한 영어 공교육 기회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 영어무상 공교육

-방학 중 캠프 등의 집중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어이력철(가칭) 등 학생 개인별로 제공된 영어 프로그램 이력철을 만들어 교육의 연계성을 갖고, 효율적 지도를 가능하게.

○눈에 보이는 입시 영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과감히 도입

-외고, 국제고 입시폐지 및 선지원 후추첨 선발 방식 도입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제도 도입 재검토

국가 통합적인 외국어 교육목표와 성취 수준 제시가 가져올 파장. 학교교육능력 향상 효과 보다는 성취수준에 꿰 맞추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최소 성취기준(예를 들어 학년별 기초학력수준 등)은 필요하겠지만 이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판정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는 획일적 성취수준보다 개인별 능력에 맞는 성취기준이 중시되어야 할 것임(수준별 수업 확대 등).

○영어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 적절한 교육방법 및 형태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영어교육 수요조사·연구 추진

-영어 조기교육, 단기 조기유학, 고강도 영어캠프 등에 대한 맹신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 조성

-지나친 시험 위주의 영어교육 지양. 언어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당장 성과가 보이는 시험을 너무 강조.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 3. EBS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의 한계는 방송이라는 성격상 자율적 학습능력이 없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듣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그 대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제작을 고려할 경우, 장점은 검증된 양질의 표준화된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부족한 교실수업을 보충.

- "교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발음의 식별 및 인식, 억양 및 강세, 리듬, 다양한 언어 표현(Language varieties), 문장 구조의 인식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적인 교실수업에서

부족하기 쉬운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EBS 영어 교육 방송의 초등 영어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소재로 하고 있어 초등 학생들에게 영어의 필요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방송매체는 지역 간의 격차나 교사의 개인차 등을 극복하고 동일 내용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달"

- 한편 교실 내 방송수업 활용을 제도화할 경우, 교사의 방송 의존성을 높여서 교사 자신의 연구활동을 등한시 하고 수업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임. 교육방송을 숙제나 복습용을 유도하는 활용법 등.
-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교수능력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방송 활용을 유도하여 표준화된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으로 운용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듯.





EBS English 클립(Clip)형 콘텐츠를 통한  
공교육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박 치 형

(EBS 영어교육채널 팀장)



# EBS English 클립(Clip)형 콘텐츠를 통한 공교육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박 치 형

(EBS 영어교육채널 팀장)

## I. 개요

### 1. 글로벌 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영어 중요성 증대

- 전 세계 78개국, 20억 명 이상이 영어 사용을 하며 세계 100위권 대학 중 75%가 영어권 대학(Newsweek, '06. 8), SCI 등재 저널 73% 영어권 저널, 인터넷 콘텐츠의 68% 영어 표현(Global Research, '04)
- 반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 고 비용

- 연간 영어사교육비 15조원 지출(삼성경제연구소 추정, 2006)
- 우리나라 교육 총 예산의 47.5%
- OECD 국가의 10배 수준
- GDP 대비 일본의 18배
- 토플응시자 세계 최다 (연 12만여명)

영어사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

#### 저 효율

- 언어능력 55개국 중 44위 (2008, IMD)
- 토플 말하기 161개국 중 136위 (ETS, 2008)
- 토플 점수 평균 78점(전세계인 평균이하)
- 언어능력 아시아 12개국 중 최하위 (PERC 정치경제위험컨설팅)

영어능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

## 2.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교육매체 활용

- 지난 수 년 간 정부 주도의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이러닝 인프라 환경 구축.
-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 제한된 영어사용 환경극복과 사용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3. 디지털 컨버전스,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

- 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도 IPTV, DMB, WiBro 등 방송통신 융합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교육 매체 및 콘텐츠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으며, 영어교육 또한 시대 흐름에 맞는 적합한 영어 수업 모델 및 콘텐츠 변화가 필요함.
- 또한,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영어 교육 부분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대해야 함.

# II. 영어 콘텐츠 활용 현황 및 현장 요구 사항

## 1. 교사 활용 콘텐츠 부족

- 영어 교사의 수업 내실화를 지원 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가 수업 시간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수업 부교재가 필요하며 특히, 영어 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영어교과서 기반의 수업 부교재 니즈 증가되고 있음.
-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는 콘텐츠는 많으나 교사가 수업 시간에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영어 공교육 보완을 위해서는 교사용 콘텐츠 개발 및 교수-학습 모형이 함께 개발 되어야 함.

## 2. 사교육업체 대비 공교육의 교사 지원 시스템 미흡

- 사교육업체[T-nara, I-Scream... 등]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및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유료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정부에서는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와 함께 영어전용 교실, 거점학교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사의 영어수업 활용 콘텐츠 지원은 이에 비해 미약한 상태.



### 3. 영어 콘텐츠 제작 시 교사들의 요구 사항

- 콘텐츠 활용이 쉽고, 교실 현장에 맞게 재가공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작.
- 교과 연계와 함께 짧고 분절화 된 고화질의 동영상 자료.
-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영역을 동영상으로 제작 및 제공.
- 수업에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흥미유발형의 자료.
- 콘텐츠와 함께 교사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과 학생을 위한 워크북 서비스 제공.

## Ⅲ.EBS English 클립(Clip)형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계획

[EBS English 콘텐츠 활용 구성도]



[EBS English 프로그램 2010년 3, 4학년 1학기 제작 계획]

구분	제작 편수	내 용	
방송 프로그램	100편	아침 자유헌습 /방과 후 학교 활용	
클립(Clip)형 콘텐츠	900편	영어회화 동영상	100편
		어휘학습용 영어Chant	200편
		발음 따라하기	200편
		영어로 배우는 교과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등)	100편
		교사용 가이드	100편
		스토리 연계 학습 콘텐츠	100편
		프리미엄 콘텐츠	100편
계	총 1,000편 제작		

※상기 내역은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방송 일정 (계획)

대상 : 전국 초등 3~4학년

방송 시간	08:40 ~ 09:00(생방송) - 아침자유헌 학습 활용				
	14:00 ~ 14:20(재방송) - 방과 후 학교 활용				
구분	월	화	수	목	금
초등 3학년	●		●		● (공통)
초등 4학년		●		●	● (공통)

※ 매 주 금요일은 3~4학년 공통 화상영어 연계 쌍방향 서비스

[기대효과]

- 공교육 보완 측면

1. 교사 활용 중심의 클립(Clip)형 콘텐츠 서비스

- EBS가 보유한 양질의 콘텐츠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맞게 분절화 하여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사 활용 중심의 **3분미만 클립(Clip)형 VOD 콘텐츠** 제공.

- IPTV(교사 활용), Web site(학생 활용) 연계 탑재

- ※ PTV활용 영어 콘텐츠는 3개 통신사(LG데이콤, SKB, KT)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전국의 모든 영어교사가 각 학급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2.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안(Teacher's Guide) 제공

- 정규 교과 시간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시에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 북 및 워크시트 제공.

## 3. 사전 교사연수 실시

- “EBS 원격 교사 연수” 를 통해 교사의 콘텐츠 활용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영어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선진화 및 교사의 교수 수준 제고.

## 4. 교사 활용 편집시스템 제공

- EBS English 웹 사이트를 통해 EBS English 방송프로그램 및 교과 연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및 편집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 사교육비 절감 측면

#### 1. 방과 후 학교의 영어 프로그램 다양성과 수준 제고

- 정규 영어교과서에 기초한 한 양질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방과 후 학교를 비롯한 영어 사교육에 지출 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학 기간에도 방과 후 학교 영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연계 기획하여 콘텐츠 제작 및 방송서비스.

#### 2. 방과 후 학교를 통한 년 간 4,300억 원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초·중등 방과 후 학교 영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 추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단계 (초등 3,4학년)	4,300억	4,300억	4,300억
2단계 (초등 5,6학년)	.	4,515억	4,515억
3단계 (중학 1~3학년)	.	.	7,225억
<b>절감 금액</b>	4300억	8,815억	1조8,052억

[2009년 교육통계연보 학생 수 기준]

[산출 근거]

- 초등 3~4학년 학생수: 120만 명 , 5~6학년 학생수: 125만 명
- 중학 1~3학년 학생수: 200만 명
- 방과 후 학교 월 평균 지출 비용 : 30,000원
- 학생수 X 월 지출 비용 X 12 개월 = 1년 영어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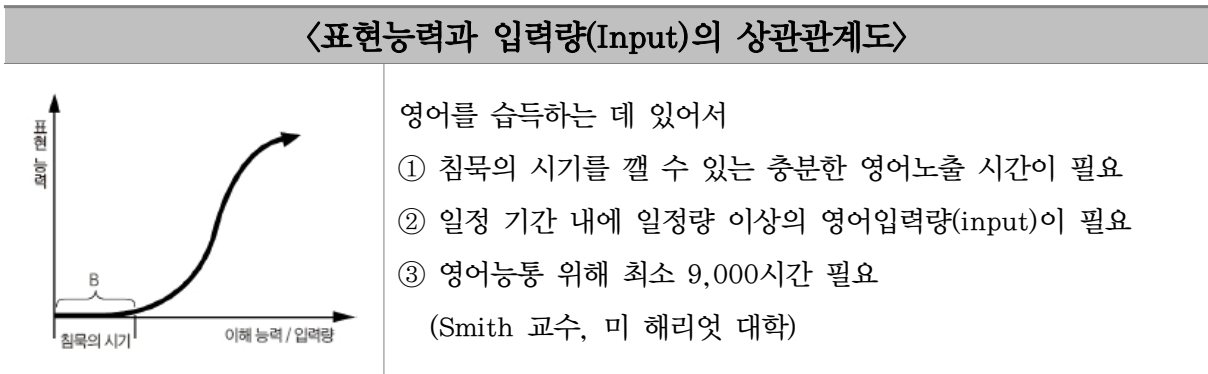
### 3. 영어교육격차(English Divide) 해소 등 교육 복지 실현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무료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지역 별, 소득별간 영어교육 격차 및 교육기회 편차 해소

## IV. 제언

### 1. EBS English의 공공채널 지정 및 공익채널 선정 필수

- EBS English는 100%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에서 제외돼 교사와 학생의 이용에 불편 초래.
- EBS English가 우리나라 절대적 영어노출 시간 증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채널 및 공익채널과 같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함.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영어노출시간이 10년간 842시간에 불과

초등학교(3~6)	중학교	고등학교	계
136시간	255시간	451시간	842시간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 2. 안정적인 재정보호와 정부 지원 필요

- 초, 중등학생들에게 최고 인기 영어교육사이트(별첨1)로 평가 받고 있는 EBS English가 한시사업(3년)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이어져 공교육 보완과 영어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보호와 정부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됨.
- 영어교육강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긴밀한 연계와 적극적 홍보 필요.

(별첨1)

## " EBS English 공적 영어교육사이트 초·중생에 최고 인기"

(서울=연합뉴스) 2009-10-28

이준삼 기자 = 초·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는 EBS의 무료영어 교육서비스인 EBSe(www.ebse.co.kr)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가 이달 16~26일 학부모 회원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9%로 나타났다.

영어학습사이트 이용자 중에서는 EBSe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35%로 가장 높았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어교육사이트인 '꿀맛닷컴' 이용자도 12%로 파악돼 영어 사교육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공적 영어교육사이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연구소 측은 분석했다.

온라인 영어학습의 흥미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63%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고, 자기주도적 학습효과에도 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아직 온라인 영어학습이 크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며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



정 일 용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